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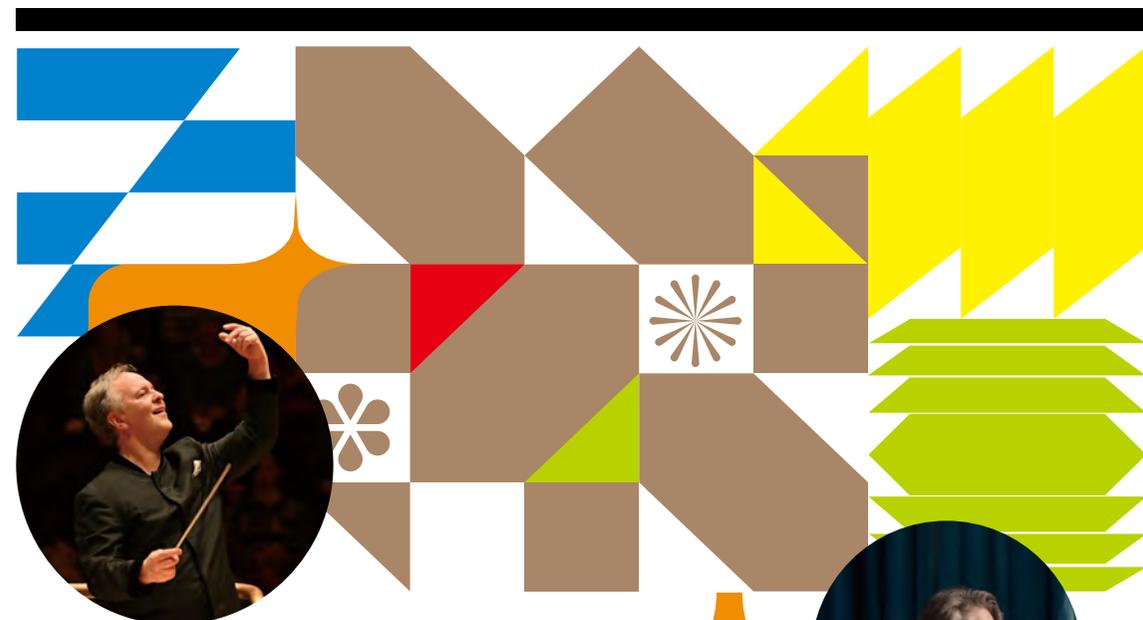
VOL.  
185

#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FEBRUARY-MARCH  
2026

아트뷰 2026 FEBRUARY-MARCH VOL.185



# 2026 PREVIEW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성남문화재단

테마스토리  
2026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미리보기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성남의 예술가  
회화 작가 이만나



성남아트센터 2026 시즌

# Season 2026

  
SNART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1 : 신소장품전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찬란한 고요

*Luminous Silence*

김남표 민재영 서지은 송윤주 송지혜 이현배  
장원실 장희정 정서인 피정원 한광우 홍세연

2026. 2. 20. FRI - 4. 19. SUN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SNART 2026 Season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3.28(토) ㉠
가족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	5.8(금)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5.23(토) ㉠
클라라 주미 강 & 김선욱	5.27(수)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6.12(금)~13(토) ㉠
발레 스타즈	7.25(토) ㉠
키즈 페스티벌 가족 뮤지컬 <넘버블록스>	8.1(토)~2(일) ㉠
키즈 페스티벌 전래동화 클래식 <별주부전>	8.8(토) ㉠
키즈 페스티벌 가족 음악극 <뭉든지 텃밭>	8.8(토) ㉡
키즈 페스티벌 가족 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	8.12(수) ㉡
키즈 페스티벌 패브릭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꼬끼리 코바>	8.14(금) ㉡
조수미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	8.14(금)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극장 <라크리마>	10.2(금)~3(토) ㉠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리사이틀	10.3(토) ㉢
국립극단 <태풍>	10월 중 ㉠
송년음악회	12.31(목) ㉠

## SNART 2026 Series

마티네 콘서트	3~12월 ㉢
연극 만원	2·4·6·8·10월 ㉡
오후의 콘서트	3~12월 ㉡
오페라 정원	4~11월 ㉢

## Outdoor Festival

피크닉 콘서트	하반기 ㉤
파크 콘서트	하반기 ㉡
뮤직 페스타	하반기 ㉤



©shutterstock

사막 위에 피어난 예술의 리듬

# RIYADH ART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초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는 한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중동의 도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도시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다. 일상의 공간마다 예술이 스며들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리야드 아트Riyadh Art 프로젝트가 있다. 리야드 아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핵심 문화 프로젝트로, 그 목표는 꽤 분명하다. 도시 전역에 공공예술을 확산해 리야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 이를 위해 공원과 광장, 도로와 지하철역, 주거 지역까지 일상의 공간을 캔버스 삼아 1,000점 이상의 작품 설치를 계획·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트 아트 페스티벌 '누어 리야드Noor Riyadh'이다. 해가 지면 빛과 영상, 설치 작품이 건물 외벽과 거리에 펼쳐지며, 도시는 또 다른 풍경으로 바뀐다. 특히 2023년 누어 리야드는 세 점의 대형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네덜란드 아트 그룹 DRIFT의 〈Desert Swarm〉은 수천 대의 드론으로 사막의 새 떼를 구현하며 최다 드론 운용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작가 미겔 슈발리에 Miguel Chevalier의 〈Magic Carpet, Origin of the World〉는 대형 인터랙티브 프로젝션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디지털 풍경을 만들어 냈다. 독일 작가 크리스토퍼 바우더Christopher Bauder의

〈Dialogue〉는 킹덤 타워와 알 파이살리아 타워를 빛으로 연결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확장시켰다. 이 세 작품은 총 일곱 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하며 일종의 상징성을 확고히 했다. 이 예술적 여정에는 세계적인 작가와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빛과 공간의 지각을 탐구해 온 미국 작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시민의 얼굴과 이야기를 작품으로 연결하는 프랑스 작가 JR, 사우디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마날 알 도와얀Manal Aldowayan 등은 각자의 언어로 도시와 사람, 기억을 해석하며 프로젝트의 서사를 확장해 왔다. 이들은 때로 지역의 역사,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리야드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또한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Tuwaiq Sculpture Symposium'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도시 곳곳에 영구 설치되어, 공공예술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문화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한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곳에서 시민은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다. 작품 사이를 산책하고, 아이들은 조형물 주변을 뛰놀며,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작품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예술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배경이 되고, 일상의 일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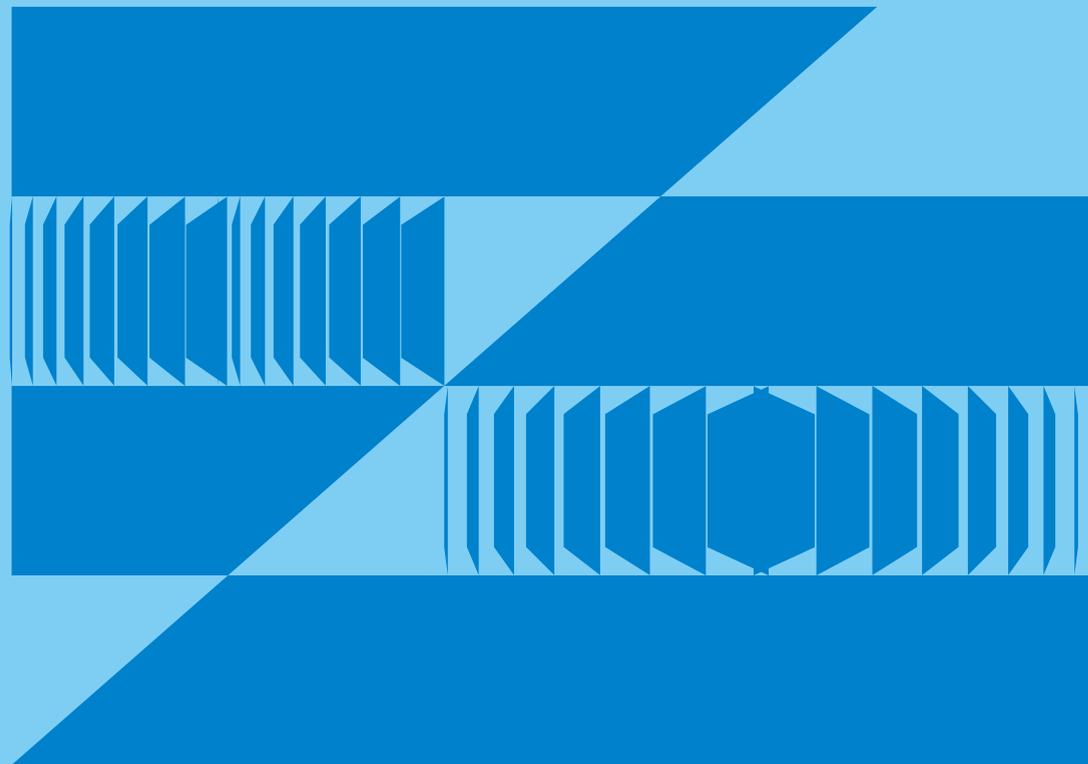
사막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야외 미술관은 묻는다. 도시는 과연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글 임보연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편집장

# CONTENTS

## 2026

### FEBRUARY & MARCH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6년 02+03월호

통권 185호(비매품) 2026년 2월 20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환  
 기획 · 편집 손세은 seson@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30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주)에이치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 인쇄 문덕인쇄

#### ON THE COVER

표지에 등장한 두 명의 예술가는 지휘자 사카리 오라모(@Mark Allan)와 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Marco Borggreve)입니다.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 THEME STORY

- 08 테마스토리 1 공연  
세계적 무대부터 일상의 예술까지
- 16 테마스토리 2 전시  
깊이를 더하다, 경계를 넓히다
- 20 테마스토리 3 문화사업  
창작의 실험에서 생활의 배움까지

#### VIEW

- 24 미리보기 1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 28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 34 미리보기 3  
오후의 콘서트
- 38 미리보기 4  
연극만원 <템플>
- 40 미리보기 5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 42 미리보기 6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 <찬란한 교요>
- 44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I. 한국 가곡

#### CULTURE

- 50 오페라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56 트렌드  
2026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 6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66 BOOK  
이 한 권의 책

#### INSIDE SEONGNAM

- 70 리포트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25 성남문화재단
- 76 성남의 예술가  
회화 작가 이만나
- 82 OPEN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 84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 85 2·3월의 큐레이션
- 89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 95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 96 성남문화재단 공간 탐구생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VOL. 185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람데뷰 울트라 화이트, 뉴플러스)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 20

## PREVIEW

# 20

올 한 해 성남문화재단에서 선보이는 공연, 전시, 문화사업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미리 살펴봅니다.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공연이 관객의 일상에 스며들고, 폭넓은 전시를 통해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가며, 문화예술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흥미로운 문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08** **THEME STORY 1 공연**  
세계적 무대부터 일상의 예술까지

**16** **THEME STORY 2 전시**  
깊이를 더하다, 경계를 넓히다

**20** **THEME STORY 3 문화사업**  
창작의 실험에서 생활의 배움까지

©Marco Borregrove



©Marco Borregrove



©김영준



2026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공연

# 세계적 무대부터 일상의 예술까지

새로운 시즌을 여는 2026년의 무대, 예술은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내한 공연부터 동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 여름을 풍성하게 할 어린이 공연들과 평일 낮을 채우는 콘서트까지, 올해 성남문화재단은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름만으로 기대를 모으는 브랜드 공연과 새로운 감각의 기획이 어우러진 올해의 공연을 따라, 예술이 만들어 내는 '지금, 여기'의 순간을 만나 본다.

**거장들이 찾는 클래식 명가<sup>名家</sup>**

시즌의 포문은 '영국 오케스트라의 자존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다. 1930년 창단된 BBC 심포니는 BBC 프롬스와 바비컨 센터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하며, 영국 문화와 클래식을 대표하는 악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왔다. 3월 28일(토)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2013년부터 악단을 이끌어 온 핀란드 출신의 수석지휘자 **사카리 오라모**(Sakari Oramo)가 지휘를 맡는다. 오라모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력 향상과 레퍼토리 확장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악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지휘자로 손꼽힌다. 이번 무대에서는 BBC 심포니의 정교한 앙상블과 오라모의 지적이고 구조적인 해석,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학구적인 비르투오시티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젊은 슈트라우스의 상상력과 관현악 기법이 집약된 <돈 후안>을 시작으로, 손열음이 협연하는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3번과 영국 작곡가 제럴드 핀지의 <에클로그>, 원시적이고 강렬한 에너지의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까지 20세기 관현악 레퍼토리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섬세한 음색과 균형 잡힌 해석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아 온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온 **김선욱**이 5월 27일(수) 콘서트홀에서 듀오 무대를 선보인다. 베토벤 소나타 전곡 프로젝트 등 오랜 협업을 통해 깊은 음악적 교감을 쌓아 온 두 연주자는 이번에도 깊이와 서정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미 지난해 2월 베를린 공연에서 동일한 레퍼토리로 호평받은 바 있어 한층 무르익은 연주가 기대된다. 베토벤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까지, 고전에서 20세기에 이르는 바이올린 소나타 레퍼토리의 풍부한 매력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디바'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이 8월 14일(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40주년 기념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고난도 콜로라투라 아리아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신작까지 조수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담아낸다. 긴 세월, 한결같은 재능과 열정으로 세계를 누빈 그가 이뤄 낸 예술적 성취와 오늘의 도전, 미래를 향한 노래까지 그 찬란한 예술적 여정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뜻깊은 무대다.

10월 3일(토)에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1.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사카리 오라모  
2. 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3.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 피아니스트 김선욱



©Marco Borregreve



©Marco Borregreve

거장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Elisabeth Leonskaja)가 콘서트홀을 찾는다. 1945년 옛 소련 조지아 태생의 레온스카야는 러시아 비르투오소 전통의 후예이자, 여전한 현역으로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피아니스트다. 2018년 성남아트센터 첫 내한 공연 당시 원숙한 기품의 슈베르트 연주로 진한 감동을 전한 레온스카야는 이번 무대에서 그가 평생 탐구해 온 작곡가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를 들려준다. 베토벤 말년의 성찰과 독백을 담은 작품들로, 음악의 가장 내밀한 심연에 도달한 노거장의 경이로운 예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성남 원도심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성남아트리움은 2026년에도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들을 선보인다. K-팝 속 클래식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K-팝으로 만나는 클래식**>(4월 11일)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리사이틀(5월 20일), 세계적인 고음악 소프라노 임선혜와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러브 듀엣**>(6월 27일) 등이 성남아트리움을 찾아온다.



©Jean Louis Fernandez

1

### 동시대 세계를 비추는 무대

유럽 연극계를 강타한 화제작,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극장 Théâtre National de Strasbourg의 <라크리마 LACRIMA>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0월 2일(금)과 3일(토)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한다. 2024년 초연 이후 아비뇽 페스티벌과 파리,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극장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작품은 파리의 패션 하우스, 알랑송의 레이스 공방, 인도 뭘바이의 자수 공방을 배경으로 화려한 패션 산업 이면의 노동 착취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모순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 고통을 견뎌 내는 인간의 강인함과 고귀한 장인 정신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스트라스부르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이자 극작가인 출가인 캐롤린 기엘라 응우옌(Caroline Guiela Nguyen)이 연출을 맡아 다큐멘터리적 사실성과 영화적 기법을 결합한 무대로 극적인 몰입도와 동시대 연극의 새로운 감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소리꾼이자 판소리 창작자인 이자람의 판소리 공연 <눈, 눈, 눈>도 5월 23일(토) 성남 무대에 오른다.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 작품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배경으로 인간의 탐욕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통 판소리 양식 위에 고수의 북장단과 소리꾼의 소리, 재담으로 풀어낸다.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들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뮤지컬과 서커스, 인형극 등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연들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먼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어린이 공연 최고 평점에 빛나는 호주의 아동 서커스 <칠드런 아스팅키>가 5월 8일(금) 상연된다. 90년대 복고풍 어린이 쇼를 배경으로 두 연기가 펼치는 에너지 가득한 스텐트와 공중 묘기, 아크로바틱 퍼포먼스가 신나는 웃음을 선사한다.

8월 1일(토)과 2일(일)에는 가족 뮤지컬 <넘버블록스>가 성남을 찾는다. 영국 BBC 어린이 교육 채널 CBeebies이 제작한



©2026 Alphablocks Ltd. All rights reserved

2

인기 수학 교육 애니메이션 <넘버블록스>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로, 놀이처럼 배우는 재미있는 수학 원리와 함께 끝없이 넓은 넘버랜드에서 태어난 넘버블록 '일'의 모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또한 전래동화와 판소리, 클래식이 결합한 <별주부전>이 8월 8일(토) 콘서트홀에서 상연된다.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서양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전통 음악의 신선한 조화, 색다른 무대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무엇이든 쑥쑥 자라는 신비로운 텃밭 이야기를 다룬 <뫼든지 텃밭>(8월 8일),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가족인형극 <산초와 돈키호테>(8월 12일), 일상 속 오브제로 다양한 동물들을 표현하는 패브릭 오브제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8월 14일) 등 교육적 요소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들이 마련된다.

- 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극장 연극 <라크리마>
- 2. 가족 뮤지컬 <넘버블록스>
- 3. 가족극 <코 잃은 코끼리 코바>



©서울문화재단

3



1

- 1. <2025 마티네 콘서트> 공연 현장
- 2. <파크 콘서트> 공연 현장
- 3. <2025 발레스타즈> 공연 현장

들의 면면은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만의 매력이다. 올해부터는 아나운서 한석준이 특별한 음악 여행의 동반자로 함께한다. 공연은 3월부터 12월까지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 믿고 보는 브랜드 공연 시리즈

오페라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정원>이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5년 만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 오페라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대와 의상을 간소화한 콘서트 오페라로, '반달' '3.1절 노래' 등을 남긴 작곡가 박태현의 음악을 재조명한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등의 오페라 명장면과 명곡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명품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소개하며 매 시즌 매진을 기록하는 성남아트센터의 간판 프로그램 <연극만원> 시리즈는 올해 '서로 다른 삶, 하나의 무대'를 주제로 다섯 작품을 소개한다. <템플>(2월 27~28일), <칼로막베스>(4월 10~11일), <망원동 브라더스>(6월 26~27일), <들꽃>(8월 28~29일), <시물라시옹>(10월 23~24일)까지 각기 다른 시공간 속 다양한 삶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국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갈라 무대 <2026 발레스타즈>(7월 25일), 주말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야외 음악 축제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 <뮤직 페스타>도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성남 곳곳에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평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상 속 음악여행

평일 낮의 무료한 일상을 달래 줄 공연을 찾는 관객이라면 주목하자. 올해 성남문화재단은 정통 클래식부터 문화·예술·음악을 결합한 무대까지 평일 낮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공연 시리즈를 대폭 확대해 관객층 다양화에 나선다.

새롭게 선보이는 <오후의 콘서트> 시리즈는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을 테마로 3~6월, 9~12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관객들을 만난다. 매월 한 나라를 선정해 음악과 예술, 문화를 엮어 마치 여행을 떠난 듯 풍성한 감성의 경험을 선사하는 무대다. 한국 가곡부터 프랑스 샹송, 브라질 보사노바, 아르헨티나 탱고, 미국 재즈, 이탈리아 오페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진행으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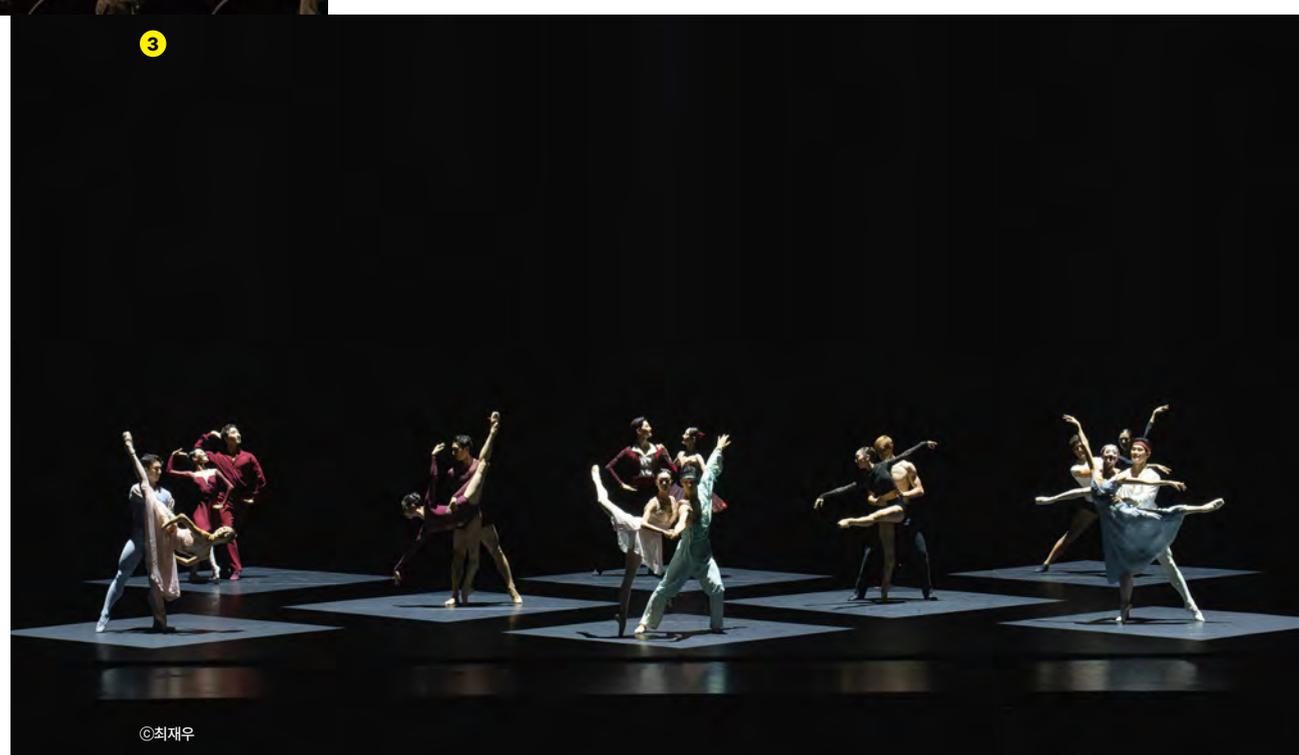
성남아트리움도 평일 오전 시간에 <모닝 콘서트>를 신설해 장르별 국내 대표 아티스트의 무대를 선보인다. 5월·7월·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과 국악인 김준수,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트리오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마티네 콘서트>는 '독일, 음악의 숲'을 주제로 서양 고전 음악의 근간이자 요람인 독일의 음악 유산을 2년에 걸쳐 탐구한다. 오랫동안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한 수준 높은 관객들의 음악적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국내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와 정상급 연주자



2

3





2024 동시대미감전

# 지구를 위한 소네트

## A Sonnet For The Earth

고상우 권승찬 김미형 나 현 오다교 유지수 장한나 사계 2

2026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전시

## 깊이를 더하다, 경계를 넓히다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미술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넓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한다. 동시대 미술의 미감에 대한 사유를 담은 현대미술 기획전부터 지역 예술가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 프로젝트,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전까지 폭넓은 전시를 선보인다. 공립미술관의 역할을 단지 '보여 주는 공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연구하고 경험하며 함께 만드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성남큐브미술관의 한 해를 미리 살펴본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 작가의 세계를 깊이 읽는 기획전

올해 성남큐브미술관의 기획전시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전시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큐레이터 토크, 아티스트 토크, 세미나 등 기획전시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의 작품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전시 경험을 다채롭게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중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네 차례 관객을 만난다. 중진·원로 작가들의 예술적 성과를 재조명하는 개인전부터, 지역 내 청년·신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까지 세대 간 균형 있는 구성으로 지역 미술 생태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상반기에는 이만나 2월 27일~4월 26일, 김홍년 5월 15일~7월 12일 작가의 개인전이 반달갤러리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상설전시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작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의 대표 기획전인 '동시대이슈'와 '동시대미감'전은 문화·예술·사회·경제 등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습과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며, 그동안 '이슈'와 '미감'을 격년으로 교차 개최해 왔다. 4월 10일~6월 7일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2026 동시대미감전**은 한국적 미감美感의 대가 김덕용 작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종이 대신 오래된 가구나 문짝 등 나무와 자개를 다듬어 작업하는 작가의 독보적인 화풍을 통해, 결코 새겨진 한국적 아름다움과 세월에 따라 깊어지는 '삭힘'의 시간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기다림, 인간적인 따뜻함의 미학을 선보인다. 성남큐브미술관의 소장품을 주제별로 엮어 소개하며 열린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은 2회로 나누어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된다. 2025년 신규 구입한 소장품을 소개하는 **<신소장품전: 찬란한 고요>** 2월 20일~4월 19일와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저장·재생되는 소장품을 소개하는 **<디지털 소장품전: 찰나와 영원>** 5월 8일~7월 5일이 이어진다.

## 모두에게 열린 시민 친화 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은 전시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함께 경험하고 참여하는 미술관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두에게 열린 시민 친화 공공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간다.

지난해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전시로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성남큐브미술관은 올해 무장애·다감각 전시 **<함께누리예술전>** 11월 13일~12월 6일, 갤러리808으로 장애예술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지원·배려' 중심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을 넘어, '공존·참여·경험'에 기반한 무장애 전시를 지향한다.



1. 2025년 5월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된 성남작가조명전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라> 전시 전경  
2. 2025년 3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진행된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전시 전경

시각 중심의 작업에서 다감각적 작업으로 대상을 확장하고, 관객의 참여에 따라 변화하는 공동 창작 콘텐츠를 통해 장애·비장애 구분이 없는 관람 경험을 제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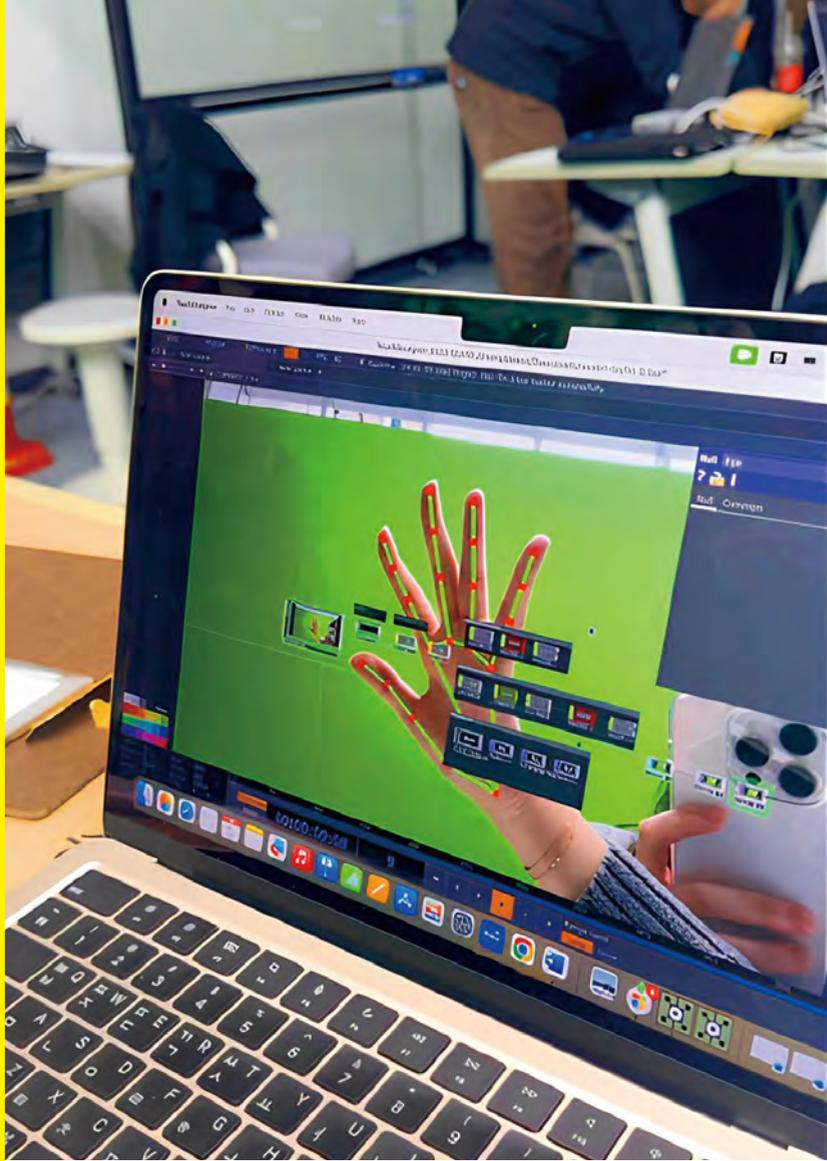
2026년 새롭게 변화하는 **<찾아가는 미술관>**과 **<아트마켓>**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찾아가는 미술관>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미술관 소장품을 대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임차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역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소외계층에는 예술 작품 감상 기회를 더욱 폭넓게 부여하려는 시도다. 또한 지역 예술가의 소품과 굿즈를 판매하는 <아트마켓> 7월 24일~8월 16일, 반달갤러리를 운영해, 미술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 예술 생태계의 순환을 이끄는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기획전도 마련된다. **<여름특별기획전>** 7월 3일~9월 6일에서는 관람·체험·교육이 어우러진 팝아트 전시를, **<겨울특별기획전>** 12월 15일~2027년 3월 21일에서는 인문학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명화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경계를 넘어 더욱 깊이 있게, 성남큐브미술관의 전시와 함께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길 기대한다.

2





성남문화재단은 올해 새롭게 '아트x테크 창작랩'을 구축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의 지평을 넓혀 간다

## 2026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문화사업

# 창작의 실험에서 생활의 배움까지

2026년 성남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창작 실험부터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까지, 문화예술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잇는 사업들을 펼친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과 생활문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 창작과 참여, 배움과 여가가 서로 연결되는 문화 생태계가 성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창작의 토대

올해 성남문화재단은 기술-예술 융복합 환경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넓혀 가는 한편,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창작 언어로 자리 잡은 변화에 주목하며, 창작 환경 전반의 전환을 모색한다.

먼저, 기술 중심의 창작을 넘어, 공공성과 메시지 중심의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아트x테크 창작랩' 조성에 나선다.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유희공간에 마련되는 이 공간은 예술인과 기술 전문가가 함께 실험하고 교류하는 창작 거점으로 운영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 실험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의 커

뮤니티 활동이 연계된다. 완성된 창작물은 전시와 쇼케이스를 통해 시민과 공유되고 창작의 전 과정은 아카이브로 축적되어, 이후의 창작과 담론을 잇는 토대가 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을 위한 지원 체계 역시 정교해진다. '2026 예술창작지원 통합공모'는 성남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 청년예술활동, 창작공간, 교류·협력 지원 및 모든예술31 등 다섯 개 분야를 아우르며 창작 단계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구축된 예술인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모 접수부터 사업 홍보, 아카이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는 문화예술

성남문화재단은 예술을 배우는 경험이 일상의 여가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생활문화를 아우르는 기반을 확장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26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깊이와 폭을 넓힘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예술 놀이'와 '꿈꾸는 그림책 극장'을 통해 예술을 처음 만나는 시기의 감각과 상상력을 섬세하게 키워 내고, 보호자와 교사, 매개자를 아우르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병행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성을 높인다. 또한 교육연극, 찾아가는 공연 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현장에 밀착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요를 충실히 채워 준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역시 참여자의 특성과 삶의 맥락을 고려한 단계형·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을 넘어 삶의 일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예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맞춤형 강좌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 정규 강좌와 성인 대상 감상·실기 교육을 지속하고,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전시와 연계한 특강, 세대별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해 교육의 폭과 재미를 함께 넓힌다.

시민 누구나 미디어로 배우고 즐기며 소통하는 공간인 성남 미디어센터는 2026년에도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민 중심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 간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뉴미디어 교육, 청년·예술인을 위한 미디어 아트 강좌를 통해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경험을 일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문화동호회는 시민의 취향에서 출발한 창작 활동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확장되는 흐름에 주목한다. 문화공간+는 시민이 산책하듯 드나들며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동네문화 거점으로, 이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생활문화동호회 연계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제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 한 해 창작과 참여, 배움과 여가가 서로 연결되는 문화 생태계 속에서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나누며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1. 수준 높은 강좌를 만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VIEW

성남아트센터의 안목으로 큐레이션한 공연과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기를 불어넣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 24

미리보기 1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 28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 34

미리보기 3

오후의 콘서트

## 38

미리보기 4

연극만원 <템플>

## 40

미리보기 5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 42

미리보기 6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 <찬란한 고요>



## 44

깊이보기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I. 한국 가곡



©Canetty-Clarke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 가장 영국적인, 가장 현대적인 ‘영국의 심장’을 만나다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교향악단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는 3월 28일(토)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는다. BBC 심포니는 런던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로열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런던의 빅 파이브(Big Five)’로 일컬어지지만, 영국 내에서의 높은 지명도에 비해 세계적으로는 다른 악단들보다 덜 알려진 경향이 없지 않다. 하지만 BBC 심포니의 음악적 역량은 영국 최고로 평가받는 런던 심포니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 Marco Borregreffe

13년 전 BBC 심포니의 마지막 내한 공연은 이 악단의 예술적 정체성과 잠재력을 분명히 각인시킨 무대였다. 2013년 가을, 당시 계관지휘자였던 고앤드루 데이비스와 내한한 BBC 심포니는 무척 인상적인 공연을 펼쳐 보였다. 엘가, 월튼, 브리튼 등 우리 청중에게는 다소 낯선 영국 작곡가 작품들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노련한 해석과 훌륭한 연주력으로 사뭇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그 무렵 앞서 거론한 '빅 파이브'가 수개월 간격으로 모두 내한했기에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공연이 BBC 심포니였다. 연주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자면 더 나은 악단도 있었지만, 연주와 해석의 조화, 음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 영국 악단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고루 잘 보여 준 쪽은 BBC 심포니였다. 특히 브리튼의 <바다 간주곡>과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에서 그들이 들려준 긴밀하고 풍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는 이들 명작의 매력과 가치에 대한 기존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했다. BBC 심포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BBC 프롬스Proms일 것이다. 매년 여름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리는 이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의 간판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프롬스에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면, 영국 관객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유니언잭을 흔들며 '희망과 영광의 나라'를 제창하는 장면은 클래식 애호가라면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영국의 일반 대중이 사랑하는 교향악단' 정도로 축소된 이미지가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분히 편향된 인식이다.

### 가장 영국적인 악단과 핀란드에서 온 거장

1930년 영국방송공사BBC 산하 단체로 출범한 BBC 심포니는 가장 영국적인 정체성과 폭넓은 국제적 스펙트럼을 겸비한 악단이다. 영국적 정체성은 태생적 기질을 바탕으로 에이드리언 볼트, 맬컴 사전트, 콜린 데이비스, 존 프리처드, 앤드루 데이비스 등 자국 출신 수장들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다져진 것이고, 국제적 스펙트럼은 헝가리 출신의 언털 도라티, 프랑스의 피에르 볼레즈, 소련의 겐나디 로즈데스트벤스키, 체코의 이르지 벨로

홀라베크 등 다양한 국적의 명장들을 주기적으로 맞이하며 형성된 것이다. 이번에 함께 내한하는 현임 수석지휘자 사카리 오라모는 핀란드 출신이다.

올해로 14년째 악단을 이끌고 있는 사카리 오라모는 근래 국제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르마 파놀라 사단'의 일원이다. 즉, 에사페카 살로넨과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후배이고, 클라우스 메켈레와 산투마티아스 루발리의 선배이다. 그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8년, 사이먼 래틀의 뒤를 이어 버밍엄 시립교향악단CBSO을 맡으면서부터다. 특히 CBSO와 함께 녹음한 그리그 관현악곡집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음반Erato는 널리 호평받았다. 그 후 핀란드 방송교향악단과 스웨덴의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을 연달아 맡으며 북유럽의 맹주로 부상했고, 2013년의 프롬스 시즌 첫날 BBC 심포니의 제13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 후기 낭만과 현대를 아우르는 관현악의 향연

이번 오라모와 BBC 심포니의 성남 공연은 다채로우면서도 주도면밀한 프로그램으로 각별한 관심을 끈다. 먼저 작곡가의 국적 면에서 독일과 헝가리, 영국과 러시아를 아우른 점은 악단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후기 낭만주의 관현악의 극치를 보여 주는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 후안>과 스트라빈스키의 환상적인 발레 음악 <불새> 모음곡은 악단의 뛰어난 기량과 풍부한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레퍼토리들이고,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핀지의 <에클로그>는 피아노와 관현악의 어울림을 통해서 보다 현대적인 음률을 맛보여 줄 것이다. 이 두 곡에서 협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맡는다.

참고로 버르토크와 핀지의 작품은 20세기 전반부에 나온 곡치고는 그리 난해하지 않으니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특히 20세기 영국 음악의 부흥기를 이끈 작곡가 중 한 명인 제럴드 핀지의 <에클로그>는 특유의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어법이 두드러지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휘자의 장기인 북유럽 음악(시벨리우스 또는 닐센)은 앙코르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본다.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 쉬츠부터 슈트라우스까지, 독일 음악의 숲을 거닐다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참신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연주, 친절한 사회자로 호응을 얻으며  
21년째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나라를 정해 1년간 10회에 걸쳐 시대별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에는 독일  
음악을 선보인다. 예전과 다른 점은 엄청난 음악  
유산을 가진 독일이기에 1년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소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아니스트 김태형에 이어  
방송인 한석준이 친절한 사회자로 나선다.

글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shutterstock

'독일, 음악의 숲'이라는 타이틀을 단 마티네 콘서트의 3월 첫 공연은 '당연히' 베토벤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의 철학이 드러난 <피델리오> 서곡으로 시작해, 심오한 아름다움을 지닌 피아노 협주곡 4번을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진상이 협연한다. '황제' 협주곡만 안다면 4번 협주곡을 꼭 들어 보시길 권한다. 그 외에도 아름답고 장엄한 2악장, 힘과 리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4악장으로 유명한 교향곡 7번이 메인 레퍼토리다. 수원시향과 상임지휘자 최희준이 연주를 맡는다.

베버는 베토벤을 계승한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자다. 악기 개량과 사조 변화 덕분에 모차르트보다 훨씬 활기차고 기교적인 클라리넷 협주곡 1번을 작곡했는데, 4월 공연에서는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 수석이자 미네소타대 교수인 김상윤의 협연으로 듣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의 징표 중 하나는 '여행'이다. 멘델스존은 스코틀랜드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3번 교향곡을 작곡했다. 메리 스튜어트 이야기, 유럽 본토에서는 만날 수 없는 풍경 등을 주관적인 감상으로 풀어낸 걸작이다. 광주시향을 이끌고 있는 이병욱이 성남시향을 지휘한다.

진정한 낭만주의자 슈만은 뒤셀도르프시의 음악감독이 되어, 그곳을 흐르는 라인강을 표제로 교향곡 3번을 작곡했다. 라인강, 그곳의 문화, 하늘을 찌를 듯한 쾰른 대성당을 본 느낌, 축제와 인간 등을 표현한 작품이다. 5월 공연에서는 실력파 지휘자 정한결과 디토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마티네 콘서트 200회 공연을 기념해 '특별한 손님'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협연자로 등장할 예정이다. 사회자에서 피아니스트로 돌아온 김태형이 마티네 콘서트와 오랜 시간 깊은 인연을 맺어 온 지휘자 홍석원·최수열과 함께 마티네 콘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낭만적이지만 과도하지 않은, 균형 잡힌 아름다움의 표본이며, 긴 서주 없이 독주자가 바로 연주를 시작하고 전 악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등 혁신적 면모도 갖춘 명작이다. 기교와 음악성 모두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윤소영이 협연한다. 한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시대적으로 멘델스존보다 한참 뒤인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지만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통해 일부러 과거로 돌아가서 '좋았던 날들'을 회고했다. 아헨 극장 제1카펠마이스터로 활동 중인 정찬민과 경기필하모닉이 이 오페라의 모음곡을 연주한다.

7월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실력파 한국 연주자들로 구성된 발트양상블의 무대다. 천재 멘델스존이 15세에 작곡한 현악 교향곡 6번은 고전적 향기가 풍기고, 현악 4중주로 편곡한 브람스 피아노곡 중 간주곡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소품이다. J. S. 바흐의 아들 C. P. E. 바흐의 첼로 협주곡 A단조는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부수석 배지혜가 협연한다. 마지막 곡인 '메타모르포젠'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2차 대전에서 폭격으로 뮌헨과 빈, 드레스덴의 오페라극장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자신의 존재 근거였던 독일 문화가 폐허가 된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음악으로 담았다.

8월에는 오페라를 혁신한 거장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기다린다. 오페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로엔그린> <탄호이저> <발퀴레> <지크프리트>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명장면을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이범주, 바리톤 이동환 등 미성과 파워를 갖춘 성악가들이 부른다. 바그너 작품에서 관현악은 단순한 반주가 아니다. 김광현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이 황홀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홀을 가득 채울 것이다.

9월에 듣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기존의 레퀴엠과 달리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구절을 작곡가가 발췌해 사용한

감상용 음악이다.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음악으로 죽은 자를 보내고 살아 있는 자를 위로한다. 음악회의 첫 곡은 독일 음악의 시조 하인리히 쉬츠의 짧은 합창 곡인데 '독일 레퀴엠' 마지막 곡과 가사가 같다. 250년을 사이에 둔 두 작곡가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부산시향 수석 객원지휘자인 홍석원과 성남시향·성남시립합창단이 연주하고, 독창자로 베르디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최지은, 독일 바이마르 극장 등에서 활동했던 베이스 김대영이 묵직한 감동을 전해 준다.

10월에는 18세기 초 드레스덴으로 가보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는 궁정 악단을 재창단하며 유럽의 비르투오소 음악가들을 스카우트했다. 프랑스의 뷔파르맹은 플루트 연주자로, 보헤미아의 젤렌카는 비올로네(비올 중 대형 저음악기) 연주자로 활동했고 하이니헨은 음악감독 격인 카펠마이스터였는데, 셋 모두 작곡도 많이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뷔파르맹의 플루트 협주곡, 젤렌카의 '히포콘드리', 하이니헨의 드레스덴 협주곡을 연주한다. 한편, 악장으로 활동했던 피젠델 역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와 교류했던 비발디와 텔레만은 피젠델과 드레스덴 궁정 악단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다. 다음 카펠마이스터였던 하세가 작곡한 오페라



1



3월 첫 공연은 '당연히' 베토벤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의 철학이 드러난 <피델리오> 서곡으로 시작해, 심오한 아름다움을 지닌 피아노 협주곡 4번을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진상이 협연한다.

<클레오피데>의 서곡도 듣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음악 전문 단체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연주하고, 독일 고음악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했던 리코더 연주자 정윤태가 실력을 발휘한다.

11월에는 만추에 어울리는 음악들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메타모르포젠'을 작곡한 후 최만년인 84세에 쓴 작품 '네 개의 마지막 노래'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작곡가의 심정이 헤르만 헤세의 가사에 실린 걸작이다.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도 빠뜨릴 수 없다. 30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4악장 파사칼리아가 압권이다. 인천시향을 맡고 있는 최수열과 경기필하모닉이 연주하며, 소프라노 조수아가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바흐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듣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체 6부 중 예수 탄생의 기쁨이 드러난 1부, 동방 박사의 여행을 다룬 5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6부를 연주한다. 바로크 합창 지휘자 김선아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을 이끌고 소프라노 윤지, 카운터테너 정민호, 테너 홍민섭, 베이스 안대현 등 바로크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실력파 성악가들이 독창자로 나선다. 이쯤 되면 벌써부터 내년의 프로그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마티네 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일시 3~12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 1. 발트양상블
- 2. 올해부터 새롭게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
- 3. 피아니스트 이진상



©Hyemi Kim



오후의 콘서트

# 음악이 스며든 오후,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바쁜 일상에서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예술과 마주하는 시간. 성남아트센터가 2026년 새롭게 선보이는 낮 공연 기획 시리즈 <오후의 콘서트>는 매달 한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따라가는 '예술 여행'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평일 오후 3시, 익숙한 일상에 잠시 침표를 찍고 음악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감성 여행이 시작된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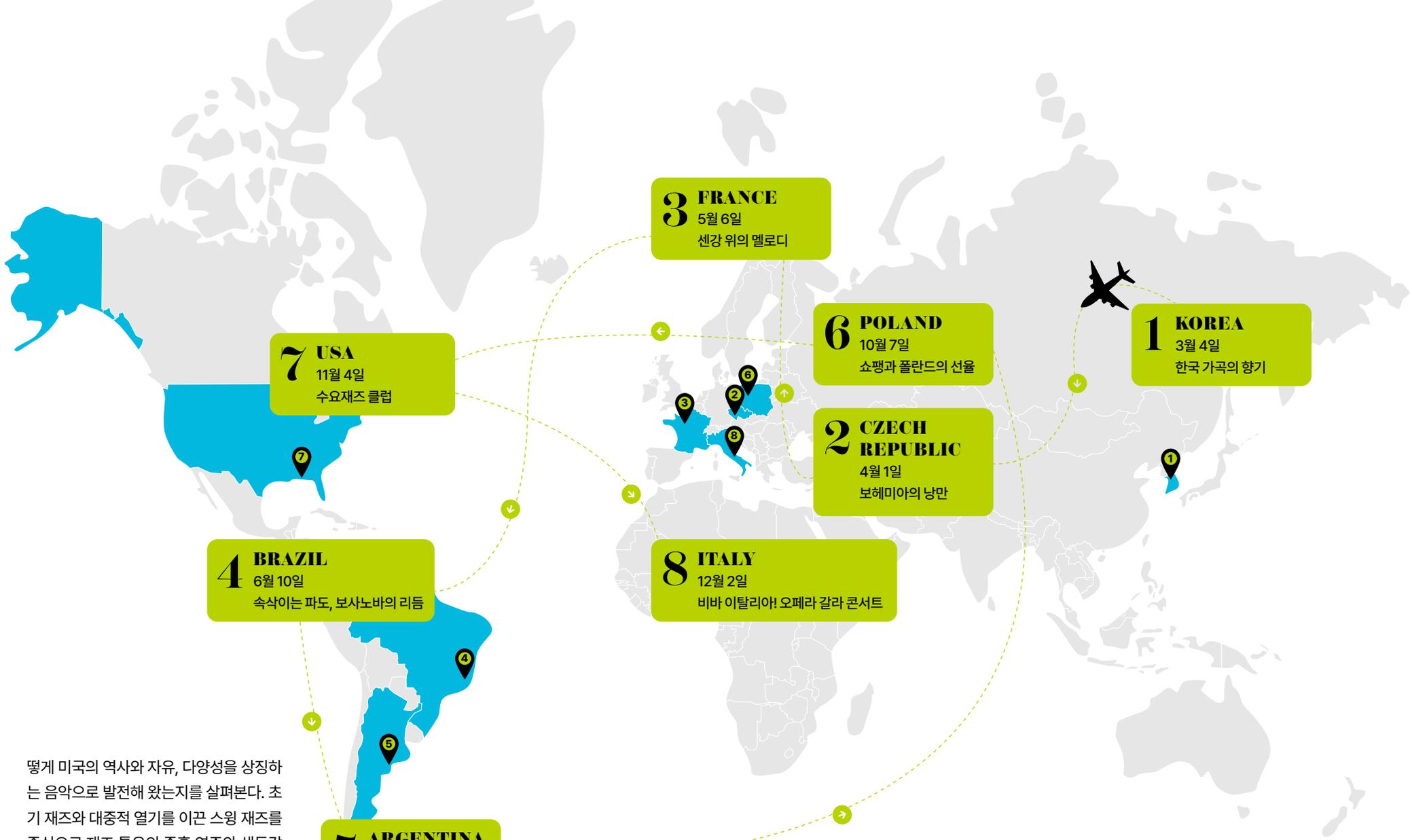
<오후의 콘서트>는 저녁 공연 중심의 관람 흐름에서 벗어나, 평일 낮 시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연 경험을 선보인다. 관객이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호흡으로 음악을 음미할 수 있도록 연주와 해설, 문화적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어우르는 공연이다. 매달 한 나라를 선정해 그 나라의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와 예술, 삶의 태도를 풀어내며, 공연장은 한낮의 작은 여행지로 변한다.

첫 여정은 3월 4일, 한국 가곡으로 문을 연다. 봄의 설렘을 담은 대표적인 한국 가곡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그려 낸다. 소프라노 김성은과 테너 황현한, 바리톤 정태준이 우리말 가사에 담긴 서정과 감성을 섬세하게 전한다.

4월과 5월은 봄의 낭만이 살아 있는 유럽으로 향한다. 먼저, 4월의 음악 여행지는 '보헤미아의 낭만'이 깃든 체코다. 피아니스트 조은아와 리수스 콰르텟, 소프라노 오신영이 체코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중심으로 보헤미아의 자연과 역사, 민족 정서가 숨 쉬는 무대로 관객들을 이끈다. 5월 6일 '센강 위의 멜로디'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상송을 통해 음악과 문화 속에 담긴 프랑스인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본다. 보컬리스트 강은영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파리지역의 일상을 한낮의 무대 위로 옮겨온다.

남미의 해변을 떠올리게 하는 경쾌한 리듬과 열정적인 무대도 만난다. 6월 10일 브라질을 주제로 한 '속삭이는 파도, 보사노바의 리듬'에서는 1964년 발매된 미국의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 Stan Getz와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주앙 지우베르투 João Gilberto의 전설적인 음반 <Getz/Gilberto>를 중심으로 보사노바의 탄생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소개한다. 싱어송라이터 나희경과 함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주앙 지우베르투 등 세계적인 보사노바 연주자들의 작품을 만나 본다. 여름 휴식기를 지나 9월 2일에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한낮의 열정'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탱고 앙상블 친친탱고와 탱고 댄서 미구엘 칼보 & 펠린 에르칸이 정통 탱고에서 누에보 탱고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춤으로 탱고의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조명한다.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클래식과 재즈 무대도 마련된다. 10월 7일 '쇼핑과 폴란드의 선율'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연주로 쇼핑의 음악에 담긴 고독과 그리움, 사랑과 상실의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11월 4일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조운과 함께 20세기 초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탄생한 재즈가 어

떻게 미국의 역사와 자유, 다양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초기 재즈와 대중적 열기를 이끈 스윙 재즈를 중심으로 재즈 특유의 즉흥 연주와 생동감 넘치는 앙상블을 만나 본다. 시즌의 마지막은 오페라 갈라 콘서트 '비바 이탈리아!'로 마무리한다. 12월 2일 공연에는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박승주, 소프라노 박소영 등이 출연해 이탈리아 오페라 거장들의 아리아로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봄부터 겨울까지 음악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 <오후의 콘서트>와 함께 음악이 스며든 낯선 오후의 풍경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자.



**1 KOREA**  
3월 4일  
한국 가곡의 향기

**6 POLAND**  
10월 7일  
쇼핑과 폴란드의 선율

**2 CZECH REPUBLIC**  
4월 1일  
보헤미아의 낭만

**3 FRANCE**  
5월 6일  
센강 위의 멜로디

**8 ITALY**  
12월 2일  
비바 이탈리아! 오페라 갈라 콘서트

**7 USA**  
11월 4일  
수요재즈 클럽

**4 BRAZIL**  
6월 10일  
속삭이는 파도, 보사노바의 리듬

**5 ARGENTINA**  
9월 2일  
탱고, 한낮의 열정



오후의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오후의 콘서트**  
일시 3-6월-9-12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템플>

# 몸으로 그리는 그림 같은 자서전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고루 인정받은 연극 작품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sup>滿員</sup> 시리즈. 2026년의 첫 무대는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20주년 퍼레이드 첫 작품이기도 한 연극 <템플>로 시작한다. 자폐라는 고립된 세계를 감각의 언어로 복원해 낸 이 작품은 한 인물의 성장 서사를 넘어,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 사진 제공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 연극만원 <템플>

일시 2월 27일(금) 오후 2시·7시 30분, 28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무대 위에는 화려한 장치도, 거창한 소품도 없다. 오직 아홉 명의 배우가 뿜어내는 열기와 거친 숨소리만이 객석을 압도한다. 피지컬 시어터 physical theater, 신체극 <템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 Temple Grandin의 삶을 다루지만, 단순히 한 인물의 성장 서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작품이 주목하는 것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템플의 독특한 내면세계가 어떻게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충돌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문을 열어젖히는데 대한 집요한 탐구다.

<템플>의 무대 위 배우들은 단순히 인물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 템플이 마주하는 환경 그 자체가 되며, 템플의 내면적 혼란과 고조되는 불안은 신체의 방향과 속도,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객석에 전이된다. 신체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특성으로도 연결된다. 2000년대 초, 소품 하나 없이 인간의 신체만으로 무한한 공간을 창조해 내던 간다의 기발한 상상력은, 20년이 흐른 지금 <템플>이라는 피지컬 시어터 양식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단단한 형태로 구현된다. 연출가 민준호와 안무가 심새인은 서사와 움직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결합했다. 특히 템플의 고착 증세를 창의적 프로젝트로 이끌어 준 칼락 선생과의 만남은 정적인 대화를 넘어선 배우들의 정교한 합을 통해 '교감'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드라마와 안무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움직임이 곧 서사이자 감정과 연결되도록 고안한 지점은 극단 간다가 꾸준히 지향해 온 특징 중 하나다.

<템플>의 초연부터 함께해 온 김주연 배우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과 멈춰 있지 못하는 손끝 하나에도 템플의 진심을 담아내며, 장애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본질을 온전히 살아 낸다. 여기에 유연, 윤성원 등 베테랑 배우들의 탄탄한 앙상블과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더해져, 20주년을 맞이한 '간다'만의 뜨거운 케미스트리를 완성한다. 서로 다른 리듬과 에너지가 만들어 내는 이들의 신체 앙상블은 템플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자, 그녀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압박하는 사회의 얼굴로 작동하며 극에 긴장감을 더한다.

결국 연극 <템플>은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세계의 언어와 속도가 얼마나 많은 존재를 소외시켜 왔는지를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말이 아닌 몸으로, 설명이 아닌 감각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한 존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 무대는 작지만 단단한 울림으로 공명한다. 이와 함께 신체 움직임이 어떻게 서사의 충위를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공연은 창단 20주년을 맞은 '간다'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



1



2

1. 이만나, <성>, 2012, oil on canvas, 194×259cm  
2. 이만나, <가변 풍경>, 2022, oil on canvas, 112×145.5cm

## 2026 성남작가조명전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 일상 속 비일상의 순간, 그 낯섦을 담은 회화

성남큐브미술관은 서양화가 이만나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를 선보인다. 이만나는 동시대 한국 구상회화의 흐름을 이어 가는 중견 작가로, 일상 풍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술 환경 속에서도 구상회화에 꾸준히 천착해 왔다. 작가는 회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완성도 높은 작품 세계로 2014년 <종근당 예술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글 박은경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이번 전시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작된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회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화풍 변천과 예술 세계가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제목으로 차용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Paul-Michel Foucault)가 제안한 공간 개념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인 '유토피아(Utopia)'와 달리, 현실 속에 실재하는 이질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는 이 개념을 작가의 작품 세계로 끌어와, 그가 포착해 온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놓인 공간에 대한 사유의 틀로 제시한다.

이만나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한 풍경과 대상이 불현듯 '낯설게' 다가오는 순간의 경험과 감정을 회화로 풀어낸다. 작가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체화된 인식의 과정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빗대어 설명한다. 화면 속 공간과 대상은 언제나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해 온 것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작가에게 특별한 발견으로 인식된 장면만이 회화로 옮겨진다.

이만나 작가의 작업은 마주한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익숙한 풍경과 대상이 문득 낯설게 인식되는 순간, 그 장면은 하나의 회화로 전환된다. 찰나의 감정과 순간을 기록한 사진에는 당시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객관적인 현장의 모습만 담겨 있지만,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기억과 감정을 되짚으며 붓을 든다.

이만나 작가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은 '글레이징(glazing)' 기법이다. 유화 물감을 아주 묽게 희석해

바르고 덧칠하는 이 기법은 공간과 시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얇은 물감의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물감을 칠하고 말리는 행위를 묵묵히 반복하는 작가의 노동은 고독하지만 충만한 시간이며, 이러한 축적의 과정 또한 작품의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만나 작가가 작품에 몰입하는 과정은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시지프 신화』<sup>1942</sup>를 떠올리게 한다. 카뮈는 평생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겪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를 통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반복된 부조리 속에서 운명을 자각하며 삶의 의미와 자유를 찾아가는 인간의 태도를 은유했다.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시지프의 삶을 '행복한 시지프'로 재해석한 카뮈의 시선은 학창 시절 회화의 의미와 확신을 고민하던 이만나 작가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작가가 회화에 임하는 태도는 일상의 다양한 부조리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각자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삶과 맞닿아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회화가 품고 있는 반복과 몰입의 시간을 따라가며, 관람객 또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소중한 교감의 순간을 마주하길 바란다.

### 2026 성남작가조명전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일시 2월 27일(금)~4월 26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3-9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 <찬란한 고요>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순간들

성남큐브미술관은 2026년 첫 전시로 소장품주제기획전I <찬란한 고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지난 1년간 정성껏 수집한 지역 작가 12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영감이 담긴 기록을 나누고 지역 미술의 가치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1. 이현배, <하얀 풍경2>, 2024, 캔버스에 연필, 61×91.9cm
2. 홍세연, <회복된 정원>, 2024, 캔버스에 아크릴, 유채, 90×90cm
3. 장원실, <사랑의 묘약>, 2023, 손지, 분채, 파스텔, 120×70cm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풍경을 만나지만, 대부분은 흘러가는 잔상으로 남길 뿐 영감과 아름다움은 특별한 순간에서만 발견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술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의 가장 조용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스쳐 지나갈 뻔한 빛의 변화, 사소한 감정의 흔들림, 설명되지 않는 감각의 잔향처럼 예술가는 찰나의 순간을 붙잡아 자신만의 언어로 화면에 옮긴다. 그 과정은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느리며, 깊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찬란한 고요>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전시다. 우연처럼 보이는 자국, 반복된 행위가 쌓인 화면, 비워 낸 여백과 절제된 움직임 속에는 작가가 마주한 '고요'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김남표는 파도의 형상을 마치 수행처럼 축적된 행위의 흔적으로 화면에 남기고, 민재영은 눈 내린 밤의 풍경으로 도시 속 고독을 담담하게 바라본다. 송윤주는 문자와 형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존재와 생명의 흐름을 표현하며, 송지혜는 인간의 흔적을 한 화면에 겹쳐 표현함으로써 사라짐과 지속의 의미를 묻는다. 서지은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이현배는 연필의 선으로 통제와 우연이 교차하는 회화의 본질을 사유한다. 장원실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따뜻한 질문을 건네며, 장희정은 서로 다른 언어의 책과 오브제를 통해 현대인의 내적 긴장을 은유한다. 정서인은 한지의 생성과 소멸로 삶의 순환을 이야기한다. 피정원은 회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기록하듯 풀어내고, 한광우의 참여형 작품은 관람객의 움직임 속에서 역설적인 고요를 경험하도록 이끈다. 홍세연은 상상의 정원을 통해 머무를 수 있는 안식을 제안한다.

작품들은 모두 거창한 사건이 아닌 작가가 일상에서 마주한 감정과 사소한 영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또한 흘러보낼 수 있었던 순간들을 붙잡아 남긴 작가의 시선, 그 눈길이 머물렀던 지점에 나란히 서서 나만의 <찬란한 고요>를 발견할 것이다.

<찬란한 고요> 속 찬란함은 멀리 있지 않으며, 고요는 비어 있지 않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바라볼 때, 일상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미술관을 나선 이후에도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잠시 발걸음을 붙잡고, 아무 일 없던 찰나가 문득 깊어지는 짧은 순간들 속에서 <찬란한 고요>의 시간을 마주하길 바란다.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I <찬란한 고요>  
 일시 2월 20일(금)~4월 19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2~9



예술로 떠나는 세계 여행 I. 한국 가곡

# 봄의 설렘을 담은 K-아트팝

봄치녀 제 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 홍난파 작곡 '봄치녀'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 윤용하 작곡 '보리밭'

따로 시간을 내어 익힌 적은 없지만, 한국 가곡은 가사만 보아도 자연스레 그 선율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1970~80년대 방송을 통해 우리 가곡을 대중가요만큼이나 많이 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금 더 젊은 세대에겐 학창 시절 떨리는 목소리로 수행평가를 치렀던 기억 때문일지 모르죠. 무엇보다 우리네 삶의 한과 정, 해학이 담긴 가사의 말맛에서는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K-컬처'의 짙은 전통이 배어나옵니다.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 일러스트 박양수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홍난파 '봉선화' 중

## 우리말 노래의 전성기

최초의 한국 가곡으로는 보통 1920년대에 작곡된 홍난파의 '봉선화'를 꼽습니다. 당시 찬송가나 외국 민요 등 기존 서양 음악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던 것과는 달리, '봉선화'는 우리 시에 직접 선율을 붙였다는 점에서 한국 가곡의 정체성을 확립한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본래 '가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의 리트, 이탈리아의 칸초네, 프랑스의 샹송 등 모국어 시에 선율을 붙여 여러 형태로 발전해 온 장르입니다. 한국 가곡의 역사는 서양 음악 도입 후를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 길지 않은 편이지만, 우리만의 음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부지런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흉년파를 비롯해 박태준의 '동무 생각', 현제명의 '산들바람', 김동진의 '봄이 오면', 조두남의 '새타령', 나운영의 '박쥐' 등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꾸준히 발표됐고,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겪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도 윤용하의 '보리밭', 김동진의 '진달래꽃', 변훈의 '명태'처럼 지금까지 애창되는 한국 가곡들이 탄생했죠. 1960년대는 교육이 활성화되며 가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무조 음악의 작곡 기법을 적용한 백병동의 '빈약한 올페의 회상'과 같은 곡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영조의 '엄마야 누나야', 김규환의 '님이 오시는지',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장일남의 '비목', 신귀복의 '얼굴' 등 대표작들이 잇달아 발표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곡차곡 작품을 쌓아 오던 한국 가곡은 대외적으로 1970~80년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81년부터 MBC에서 방영하기 시작한 '대학가곡제'는 당시 '대학가요제'에 필적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효근의 '눈', 신동수의 '산아' 같은 작품들이 이 무대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가곡을 부르는 클래식 음악 성악가의 모습이 자주 전파를 타고 대중가수가 한국 가곡을 부르는 등, 장르 간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죠. 친숙한 한국 가곡, K-아트팝의 첫 번째 전성기였을까요. 외국 성악가들의 내한 공연 앙코르에 '그리운 금강산'이 단골로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Barbara Bonney)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부른 한국 가곡 다섯 곡을 담은 음반(Decca, 1998)도 있었답니다. '대학가곡제'가 15회 만에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아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이어졌던 MBC 창작동요제나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KBS 창작동요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입에서 불릴 새로운 노래들이 꾸준히 탄생해 왔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 요즘 세대 감성 정복기

주요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지만, 한국 가곡의 생명력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03년 시작된 화천 비목 콩쿠르, 2009년 시작된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가 그 산실의 역할을 해주었죠. 이주원·김주원·윤학준 등 요즘 세대 한국 가곡 작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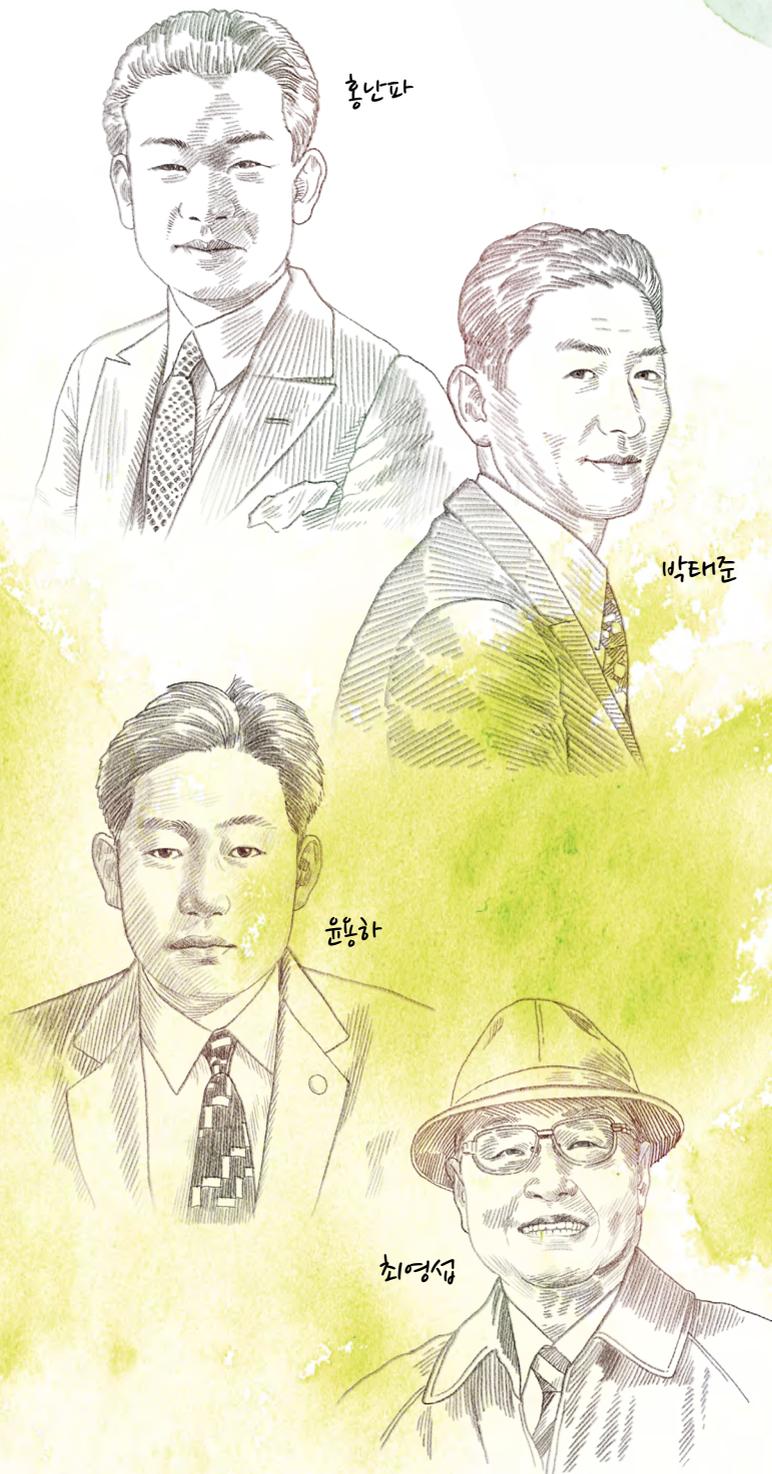
### '사는 게 무언지 하무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서 있을게' 윤학준 '마중'

들 역시 이 무대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가사는 한층 친숙해졌고, 음악은 다양화와 대중화의 경계 없이 여러 갈래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언어로 만든 노래는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았고, 몇몇 결정적 우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불린 김효근의 '내 영혼 바람 되어'나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2>를 통해 다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은 윤학준의 '마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놀라운 실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젊은 성악가들 역시 곳곳에서 '내 언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일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 가곡만이 품고 있는 특유의 정서는 세대를 넘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세대에게 '잃어 본 적도, 떠나 본 적도 없는 고국이 그리워지는' '독특한 향수를 자극한다고 할까요.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대중가요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역주행'하는 시대인 만큼, 앞으로 한국 가곡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나게 될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가곡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가곡에 '아트팝'이라는 이미지를 접목하며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작곡가 김효근이 2022년 선보인 뮤지컬 <첫사랑>은 그간 자신이 작곡한 한국 가곡을 활용해 장르의 범용성을 한층 확장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KBS가 추석을 맞아 <K-가곡 슈퍼스타>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성악가들이 참여한 이 경연은 한국어의 발음과 감정을 열정적으로 익히고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아냈죠. 상금은 무려 1억 원. 소프라노 조수미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상은 '아리 아리랑'을 부른 스페인의 소프라노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성악가를 대상으로 한 <K-가곡 슈퍼스타 코리아>의 방영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다가오는 봄에는 한국 가곡의 정서가 한번 더 만개하길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 추천 음반



한국가곡집 제2집 골든애창곡  
Danal Entertainment, 1988

한국 가곡의 '근본'을 느끼고 싶다면 이 음반을 추천한다. 발매된 지 오래 되었지만 익숙한 명곡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못 잊어 못 잊어 '쌍각' 이 나겠지요'(하대응 작곡 '못 잊어')처럼 향수를 자극하는 디션이 담긴 노래부터,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 씨주를 마실 때 (크하!) /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변훈 작곡 '명태')처럼 우리 전통 해학이 묻어나는 노래까지, 트랙마다 숨겨진 매력이 귀를 즐겁게 한다.



고성현: 시간에 기대어  
KSH ART, 2016

바리톤 고성현의 크로스오버 음반이다. 한국 가곡은 종종 '한국 사람이 불려도 가사가 잘 안 들린다'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노래할 때의 발성이 일상적인 발음의 방식과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 가곡의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고성현의 노래는 이러한 선입견을 깨주는 훌륭한 선택이다. 한국어로 된 성악 발성의 노래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 음반으로 한국 가곡이라는 장르에 한 발짝 다가 보자.

우리말 정서가 담긴 한국 가곡은  
오후의 콘서트 3월 공연 <한국 가곡의 향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 BBC심포니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Marco Borregre



**BBC**  
Symphony  
Orchestra



©Mark Allan

티켓 R 180,000 / S 130,000 / A 8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3.28.SAT  
5: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CULTURE

예술 애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예술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의 문화 흐름을 읽고 향유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 50

오페라 산책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56

트렌드  
2026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 6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66

BOOK  
이한권의 책

오페라는 1597년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에서 탄생했다. 사진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알고 보면 쉬운 오페라 이야기

# 오페라와 사랑에 빠지는 법

오페라opera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쥐어뜯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도전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일단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으로 반주하고, 성악가들은 알아듣기 힘든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오페라하우스 한번 가기는 왜 그리 또 힘든지. 공연 시간은 중간 휴식을 포함해 3시간을 훌쩍 넘기고 남자는 턱시도에 나비넥타이, 여성은 원피스 드레스를 입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아, 이렇게 장벽이 높아야 어디 엄두나 내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감정과 장면으로 먼저 다가오는, 생각보다 친절한 예술이니까요.

글 황지원 오페라 평론가



1,2.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순박하지만 가난한 시골 청년 네모리노(테너)와 아름다운 아디나(소프라노)의 사랑을 군인 벨코레(바리톤)가 방해한다

## 오페라의 탄생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페라는 영화와 함께 생일과 출생지가 분명한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손꼽힙니다. 음악, 시, 춤, 연극 등 출발점이 불분명한 '자연발생적인 예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 이후 생겼으니 그리 빠른 출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인 것이지요.

오페라는 1597년에 탄생합니다. 출생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아름다운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이지요. 당시 피렌체에서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귀족들이 주도한 인문학 스터디 '카메라타(camerata)'가 도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르디 백작도 이러한 모임을 이끌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 그의 저택 살롱에서 열린 카메라타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을 되살려 근대적인 음악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오페라가 탄생한 순간이지요.

르네상스는 신과 종교 중심이던 중세에서 탈피해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부활시키고 재생시키자는 문예 운동을 말합니다. 바르디 백작의 카메라타에 모였던 사람들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연극처럼 음악과 연극이 합쳐진, 신이 아닌 인간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노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극을 만들자고 결의합니다. 이에 첫 작품이 탄생하는데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Daphne)>입니다.

오페라는 탄생 이후 놀라운 기세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베네치아와 나폴리, 밀라노 등 가는 곳마다 대성공을 거둔 오페라는 곧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가 왕실과 귀족은 물론, 평민들까지 열광시키는 최고의 무대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합니다. 심지어 오페라에 빠져 가정사를 내팽개친 남편들이 늘어나자, 부인들이 교황에게 오페라 금지령을 내려 달라고 탄원했을 정도였지요.

어쨌든 오페라는 탄생한 지 4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예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빈, 뮌헨 같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에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들이 있고, 또 그 도시 최고의 멋쟁이들은 항상 오페라를 즐기러 극장으로 몰려듭니다. 오페라, 멋진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 오페라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

'뚱뚱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한때 오페라를 비꼬아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오페라의 내용은 대개 남녀 간의 애절한 러브스토리인데, 이를 마이크 없이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해야 하는 성악가들에게는 당연히 풍부한 성량과 탄탄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우람한 체격이 생각나시죠?

여자 성악가 중에서도 상당히 '큰 체격'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주제를 불렀던 스페인의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Montserrat Caballé)를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 검고 큰 눈망울의 전형적인 스페인 미녀였던 그녀도 성악가가 된 후에는 체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카바예는 무대 위에서 주로 페명이나 결핵에 걸린 가녀린 여주인공을 노래했는데, 사실 뭐 몸매만 보면 너무 튼튼해서 실없는 웃음이 나기도 하지요. 그래도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기립 박수를 보내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건 오페라가 인간의 목소리라는 가장 고결한 악기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을 노래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페라(Opera)는 어원상 라틴어 Opus(작품)의 복수형으로, 시를 바탕으로 노래와 연기, 춤 등 다양한 예술들이 하나의 작품 안에서 결합해 무대 위에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창조해 낸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기도 합니다.



##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사랑하고, 바리톤은 방해한다.

오페라에도 나름대로 진행 규칙(?)이 있습니다.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사랑하고 바리톤은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여성 최고음을 담당하는 소프라노(Soprano)는 누가 뭐래도 오페라의 주인공입니다. 흔히 프리마 돈나(Prima Donna)('첫 번째 여인'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그날 공연의 여자 주인공을 뜻한다)라고 불리며,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청순가련형의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라노의 파트너이자 연인으로는 남성 최고음을 노래하는 테너(Tenor)가 등장합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개런티가 높고 스타성을 자랑하는 성부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이른바 '스리 테너'는 오페라 무대의 최고 스타들이었습니다.

테너는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높은 음역을 아름답게 구사해야 하기에 전통적으로 매우 희귀한 목소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힘찬 남성미와 미끈한 미성을 동시에 지녀 남성 관객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지요. 오페라 속 테너들은 꽃미남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각처럼 잘생긴 외모에 사랑에 목숨을 거는 로맨틱한 성격이지만,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다가 곤잘 일을 그르치는 열정적인 인물이 오페라 속의 테너 캐릭터입니다. 중간에서 이 둘을 휘방 놓는 캐릭터는 바리톤(Baritone)입니다. 바리톤은 테너보다 음역이 낮고 베이스보다는 높은, 남성의 중간 음역이지요. 한 목소리로 캐릭터의 명암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에, 오페라에서는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개의 오페라는 이 세 인물의 삼각관계로 진행됩니다. 테너는 미끈한 외모를 지녔지만, 그에게는 현실적인 권력이나 재력은 없습니다. 반면 바리톤은 왕이나 귀족 같은 강력한 권력자이지만 웬일인지 여자들은 모두 테너의 품으로 달려가 안깁니다. 분노한 바리톤이 권력과 재력, 자신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 두 사람 사이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오페라의 가장 흔한 갈등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1

## 오페라의 핵심은 아리아

오페라는 아리아(Aria)라고 불리는 독창과 그 외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아리아는 연극의 독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홀로 노래하는 장면에서 흐르지요. 아리아가 오페라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객들은 주역 가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는 아리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파바로티와 안드레아 보첼리, 폴 포츠 등이 불러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라는 노래를 기억하시지요? 이 곡도 사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3막에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테너 아리아입니다.

작곡가들은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를 작곡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무리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는 아리아가 없다면 그 작품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작곡가 도니체티는 <사랑의 묘약>이라는 코믹 오페라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이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한 로맨스 아

1.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장면
2.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3.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4. 바이에른 국립오페라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Staatsoper TV'
5.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Met Opera on Demand'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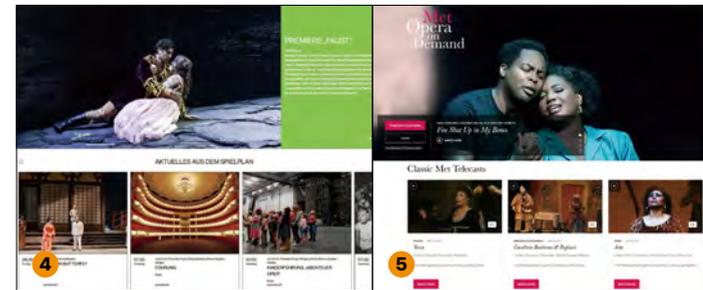
리아를 삽입했습니다. 대본가는 반대했지만, 도니체티가 고집을 부려 마지막에 집어넣었다고 하는군요. <사랑의 묘약>의 명성에는 사실 이 테너 아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오페라에는 아리아 외에도 서곡, 듀엣, 중창, 합창곡 등 다채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노래가 풍부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합창은 말 그대로 수십 명의 성악가가 함께 노래하며 목직한 감동을 주지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나 <일 트로바토레>의 '대장간의 합창', 베버의 <마탄의 사수> 속 '사냥꾼의 합창' 등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오페라 합창 명곡들입니다.

## 21세기 오페라 감상법

과거의 오페라 감상은 오페라 극장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페라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PC, 스마트TV, 휴대전화만으로도 오페라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밀라노

라 스칼라, 빈 국립오페라하우스, 런던 로열 오페라하우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 최고의 오페라하우스들이 대표 공연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 언어적인 장벽도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바쁜 직장인도,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도, 밀라노나 뉴욕에 살지 않아도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안방에 앉아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페라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과 사회, 역사와 문화에 얽힌 여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예술입니다. 이 때문에 순수 기악 중심의 일반 클래식 음악과는 달리, 작품 자체와 관람 행위 모두가 지극히 사회적이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페라는 본질적으로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예술 장르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안방에서 영상과 음반으로 오페라를 즐기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오페라하우스를 찾아 실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페라하우스로 향할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누구와 어디서 만나 어떤 분위기에서 공연을 보았는지,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즐겼는지까지, 이 모든 과정이 총체적인 '오페라 관람 경험'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특별한 감동을 찾아 오페라하우스로 한번 떠나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4

5

2026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 2026년, 한국 공연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까

2026년 한국 공연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K-공연의 글로벌화가 기대된다. 2025년 국내 공연 시장 규모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sup>KOPIS</sup>의 티켓 판매액 기준으로 약 1조7325억 원(대중음악 9817억 원)을 기록, 2024년 약 1조4588억 원(대중음악 7569억 원)을 뛰어넘으며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서울시무용단 <일무>가 미국 뉴욕에서 각각 토니상과 베시어워드를 받은 것은 국제적으로 K-공연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제 한국 공연계는 견고한 양적 성장을 이어가되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문화스포츠부장을 거쳐 현재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공연을 담당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으며 지금은 다양한 예술 현장과 정책을 다루는 공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연의 생존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K-뮤지컬의 진화는 계속된다

2025년은 한국 뮤지컬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티켓 판매액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을 처음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된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아시아권에서 한국 중심의 '원 아시아 마켓'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일상화된 가운데 뮤지컬의 본고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바로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박천후-윌 애런슨 콤비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2025년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것이다.

이런 성과는 올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결정으로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뮤지컬 지원 예산을 지난해 31억 원의 8배에 달하는 244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려 213억 원이 증가한 셈인데, 중대형 창작 뮤지컬 쇼케이스와 트리아아웃 기회 제공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뮤지컬계의 창작이나 해외 진출이 소극장 뮤지컬에 몰려 있어서 산업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라인업을 보면 흥행의 중심은 여전히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국내 초연 디즈니 뮤지컬 <프로즌(겨울왕국)>이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무대만의 시각 효과를 보여 준다. 또 폴란드 출신 여성화가 타카라 램피카의 삶과 예술을 그린 <램피카>, 펍에 모인 남자 9명의 이야기를 그린 <콰이어 오브 맨>,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리샤 키스의 음악을 기반으로 제작된 주크박스 뮤지컬 <헬스키친> 등의 초연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또 지난해 말 개막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킹키부츠> <비틀즈> <물랑루즈> <렌트> <데스노트> <보니앤클라이드> 등과 함께 올해 <빌리 엘리어트>를 비롯해 <엘리자벳>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안나 카레니나> 등 스테디셀러도 관객과 만난다.

## 정명훈·조성진·임윤찬의 아성과 20개 해외 악단 내한

올해 국내 클래식계의 특이점이라면 오랫동안 한국을 찾지 않았던 명문 악단 20개의 내한이다. 가장 먼저 한국 관객과 만난 것은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악단인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1월)로, 정명훈 지휘와 임윤찬 협연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임윤찬은 또 바로크 음악의 거장 스텔라 마사토가 지휘하는 오스트리아 실내악단 카메라타 잘츠부르크(6월), 마린 알숨이 이끄는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11월)와도 협연

한다. 마린 알숨은 2022년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자 악단 지휘자였다. 젊은 거장 라하브 사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5월) 내한 공연은 조성진이 협연자로 나선다.

내한 악단들 가운데 지휘자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이끄는 유포피아(11월)도 주목된다. 쿠렌치스는 파격적인 해석과 클래식계의 관행을 깨는 독특한 행보 그리고 록 스타 같은 외모로 유명하다.

여기에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3대 악단의 도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향이 음악감독 얀 판 츠베덴과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창단 70주년을 맞는 KBS교향악단은 2022년부터 계관지휘자로 협력해 온 정명훈을 제10대 음악감독으로 맞았고, 국립심포니는 명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인 로베르토 아바도를 제8대 음악감독으로 선임했다. 세 악단은 각각의 음악감독 및 객원지휘자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임윤찬의 아성이 굳건한 가운데 압도적 존재감을 가진 거장들도 내한한다. 특히 피아니스트들의 인기 쏠림 현상이 주목된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을 시작으로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마르타 아르헤리치, 드미트리 시쉬킨, 언드라스 시프, 비킹구르 올라프손, 알렉산드르 칸토로프, 니콜라이 루간스키 등이 내한한다.



1. 2026년 브로드웨이 신작 뮤지컬들이 잇달아 한국 무대에 오른다. 3월에 초연하는 뮤지컬 <램피카>
2. 7월에 공연하는 뮤지컬 <헬스키친>의 공연 장면
3. 피아니스트 임윤찬
4. 피아니스트 조성진

**말러 교향곡의 일상화와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150주년**

올해 국내 클래식계에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1년 내내 구스타프 말러<sup>1860-1911</sup>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오케스트라들이 공개한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20회 이상 연주된다.

말러의 교향곡은 번호가 붙은 9번, 미완성의 10번 그리고 교향적 성악곡 '대지의 노래'를 합해 모두 11곡이다. 1시간이 넘는 긴 연주 시간, 많은 악기가 필요한 복잡한 구조, 성악의 적극적 사용이 특징으로 꼽힌다. 말러는 생전에 작곡가로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그의 교향곡은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필수 레퍼토리가 됐다. 한국에서는 1999~2003년 임현정이 지휘했던 부천 필하모닉의 전국 연주에 이어, 정명훈이 2006~15년 서울시향을 이끌

며 말러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말러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이 이어진 2010~11년에는 국내 악단들이 말러 연주에 앞 다투어 도전했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말러 연주는 롯데콘서트홀이 개관한 2016년 무렵부터 꾸준히 연주되기 시작해 전국 악단으로 확산됐다. 특히 국내 양대 악단인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이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말러 사이클을 이어 가면서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필요함에도 이제는 말러 교향곡이 국내에서 어렵고 특별한 레퍼토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올해는 독일 오페라의 최고봉인 리하르트 바그너<sup>1813-1883</sup>가 북유럽 신화와 게르만 전설을 토대로 직접 대본을 쓰고 작곡한 4부작 '니벨룽의 반지'가 전막 초연 150주년을 맞는다. <라인의 황금>(2시간 40분), <발퀴레>(5시간),

<지크프리트>(4시간 45분), <신들의 황혼>(5시간 30분) 등 4부작 전체를 공연하는 데 나흘간 최소 16시간이 걸린다. 전 세계 오페라하우스에서 150주년을 기념해 4부작을 올해 모두 공연하거나 올해부터 시작해 길게는 매년 한 편씩 공연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한국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이 올해 1부 <라인의 황금>(10월)을 선보인 뒤 3년에 걸쳐 4부작을 모두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아드리앙 페뤼송이 이끄는 부천필은 4부작의 하이라이트 장면의 곡만 연주하는 '바그너 하이라이트'(8월)를 선보이고, 정민이 이끄는 강릉시향은 콘서트 오페라 <라인의 황금>(12월)을 시작으로 4부작 연주를 이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식지 않는 발레의 인기와 K-공연의 해외 진출**

무용은 오랫동안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비인기 장르였지만, 발레와 일부 스타 안무가들의 작품은 예외다. 특히 발레는 스타 무용수 팬덤과 취미 발레 열풍에 힘입어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올해에도 국립발레단, 서울시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등 3대 공공 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을 시작으로 윤별발레단, 와이즈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 민간 발레단들이 대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연을 펼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초연 4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5월)이다. 한국 창작 발레를 대표하는 <심청>은 지금까지 12개국 4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된 바 있다.

거장 발레 안무가들의 작품도 한국을 찾는다. 베자르 발레로잔 무용단이 대표작인 <볼레로> <불새>(4월) 등을 선보이는데 이어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이끄는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sup>LAC</sup>(5월)도 한국을 찾는다. 그리고 컨템퍼러리 발레와 현대무용을 넘나드는 스타 안무가들의 작품도 준비돼 있다. 웨인 맥크리거가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안무 툴 'AISOMA'를 창작 파트너로 삼아 만든 <딤스타리아>(3월)를 비롯해 크리스탈 파이트의 <어셈블리 홀>(6월),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6월) 등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국내 안무가로는 서울시발레단에서 강효형의 <대나무 숲에서>(5월)를 선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K-공연의 해외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LG아트센터가 제작한 연극 <벚꽃동산>이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과 호주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국립극단의 <해가 가블러>와 <십이야>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초청됐다. 또한 안은미컴퍼니의 <동방미래특급>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유럽 15개 도시 투어가 진행 중이며, 국립현대무용단의 <정글>과 <사라지는 모든 것은>은 스페인에 초청됐다. 무엇보다 올해는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이 공식 초청 언어로 한국어를 지정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 작품들을 초청한다. 작품 라인업은 2~3월 중 발표된다.



1.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2. 몬테카를로 발레단 <백조의 호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소녀는 왜 진주 귀걸이를 했을까?

해외에 가면 해당 지역의 미술관을 찾곤 한다. 출장 중이라도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 들른다. 실제 그림은 도록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것과는 분명 다르니까. 옛 그림을 보며 종종 상상하게 된다. 그림은 시대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자연스럽게 예전 사람들의 삶을 머릿속에 그려 보게 된다.

클라제기 한국일본 영화 전문가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어떤 그림은 그림 속 인물이 유독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왕이나 귀족의 생김새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유명인의 인물화는 실제보다 미화된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이름 없는 인물을 담은 그림은 더 오래 시선을 붙든다. 그림의 대상이 된 인물은 화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왕도 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림의 주인공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이어지곤 한다.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sup>1632-1675</sup>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그런 질문들이 뒤따르는 작품이다. 그림 속 소녀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아서다. 베르메르의 딸일 수 있다는 추정이 있기도 하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 이국적인 터번, 수수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진주 귀걸이. 그림을 보고 있다면 상상이 날갯짓을 시작한다. 소녀는 베르메르를 후원한 부호의 딸이었을까, 아니면 베르메르가 연모한 젊은 여인이었을까, 과장으로 유명한 베르메르가 어떤 연유로 붓을 들었던 것일까? 차림새에 맞지 않게 진주 귀걸이를 하게 된 사연은 또 무엇이었을까.

미국 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이런 궁금증을 상상으로 풀어내 소설 『진주 귀걸이 소녀』<sup>1999</sup>를 썼고,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sup>2003</sup>는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에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림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얻는다.

### 개신교 하녀와 가톨릭 주인

1665년 네덜란드 델프트. 흐릿(스칼릿 조핸슨)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도자기를 만들던 아버지가 눈이 멀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었고, 그는 하녀로 일하기 위해 가족의 곁을 떠난다. 그를 향한 어머니의 당부가 예사롭지 않다. “미사는 얼씬도 하지 말고, 가톨릭 기도를 들으면 귀를 막거라.” 개신교(칼뱅파) 집안에서 자란 흐릿이 가톨릭 신자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30년 전쟁<sup>1618-48</sup>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니 강한 경계심을 품을 만하다. 이교도 집안에 딸을 보내야 할 만큼 흐릿 가족의 사정이 절박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흐릿이 일하게 된 곳은 화가의 집이다. 집주인 베르메르(콜린 퍼스, 영화 자막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페르메이르’)는 그림을 그려 생계를 이어간다. 아내 카타리나(이시 데이비스)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친정어머니까지 함께 살며 식솔은 많지만 베르메르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아서다. 그림 한 점에 오랜 시간과 값비싼 재료를 쏟아 붓는 그의 작업 방식은 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하녀 흐릿에게 이 집은 편치 않다. 엄연한 상하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쫓겨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흐릿은 특히 베르메르를 대할 때 긴장한다. 남자인 데다 예술가 특유의 예민함 때문에 거리를 두고 싶었을 법하다.

흐릿과 베르메르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종교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며, 그는 이미 가정을 꾸



베르메르의 명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3월 15일(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실에서 레플리카 전시로 만날 수 있다.



린 사람이다. 흐릿에게는 최근 알게 된 푸줏간 집 아들 피터르(킬리언 머피)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도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먼저 다가가는 쪽은 베르메르다. 그는 흐릿의 미적 감각을 알아보고 물감 재료를 사 오게 하거나 물감 제조를 맡긴다. 흐릿 역시 그가 보내는 호감이 싫지 않다. “창틀을 닦으면 빛이 바뀔까 봐”라며 작업실 청소를 망설일 만큼, 흐릿은 미술을 이해하고 동경한다. 그런 흐릿에게 베르메르는 매혹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보였을 것이다.

###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 두 사람

서로에게 다가갈 듯 다가가지 못하는 두 사람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다. 베르메르의 후원자 판라워번(툼 월킨슨)이다. 그는 흐릿에게 노골적인 욕망을 품고 자신과 흐릿을 함께 화폭에 담으라고 베르메르에게 명령한다. 흐릿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구다. 하지만 후원자에게 잘못 보여서는 생

계가 흔들릴 수 있다. 영화는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탄생한 그림이 바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설정한다.

영화는 베르메르와 흐릿의 감정을 직설하지 않는다. 흐릿이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 짓는 표정(자신이 위대한 예술에 일부 기여했다고 흡족했는지 모른다), 베르메르가 무심한 듯 던지시 흐릿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다. 흐릿의 감정이 연정인지 동경인지는 불분명하나, 베르메르가 그를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작업이 이어질수록 베르메르와 흐릿의 묘한 교감은 더 깊어진다. 베르메르는 흐릿이 모자를 벗고 머리칼을 드러낸 순간을 몰래 훑쳐본다.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였던 장면이다. 아내의 진주 귀걸이를 흐릿에게 걸어 주는 장면 역시 노골적인 설명 대신 강한 상징으로 남는다. 두 사람의 관계를 말없이 드러내는 순간들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속마음을 표하기도 한다. 베르메르는 흐릿을 위해 오랫동안 고수해 온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흐릿은 그림을 위해 그의 까다로운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랑이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을 관객은 어렵지 않게 읽어 낸다. “왜 나는 안 그려 주냐”는 아내의 질문에 베르메르가 “당신은 이해 못 하잖아”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그에게 흐릿은 연인 이라기보다, 적어도 예술적 동반자 같은 존재였으리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sup>1452-1519</sup>의 명작 <모나리자>에 비견될 만한 명작이라는 의미에서다. <모나리자>처럼 눈썹이 없는 얼굴,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소녀의 정체. 알려진 게 거의 없기에 그 미소가 더욱 신비롭게 다가오는 걸까. 이 그림이 그리고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관객을 매혹시키는 이유일 것이다.

# 이한권의 책 다시 마음을 세우는 시간

새해가 시작하고 어느덧 봄을 맞이하는 시기, 연초에 세웠던 새해 계획이 벌써 흐지부지됐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짐이 흔들렸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에 봄은 오히려 더 적당한 시기다. 다시 마음을 붙잡는데 도움을 줄 책 세 권을 소개한다.

글 김소민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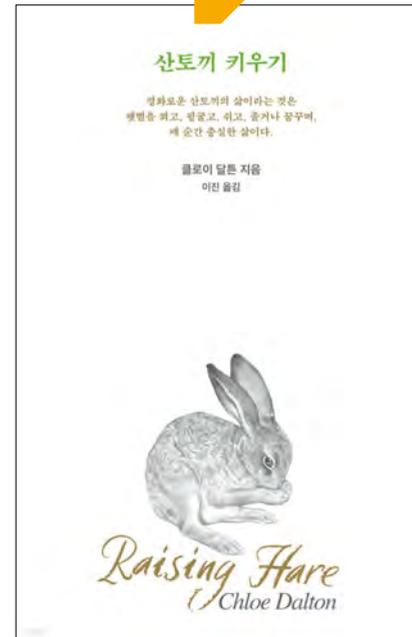
## 도파민 가족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족 간 소통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짚는 책이다. 15년간 초등교사로, 이후 10년간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온 저자는 지하철에서 부모와 아이가 각자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풍경을 관찰하면서 대면 상호 작용의 부재가 가족 내 감정 표현 능력과 소통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간 소통을 되살리는 구체적 실천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일과를 녹음해 공유하는 '가족 음성 일기'나 저녁 식탁에서 '무반응 금지 게임'처럼 상대의 말에 반드시 반응하는 활동 등이다. 이를 통해 기술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순간이 생겨난다.

새해 다짐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의지의 문제라고 느껴 왔다면, 이 책은 시선을 바꿔 준다. 다짐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자극을 줄이고 관계와 일상을 정비하는 환경 설계에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목표보다 습관, 결심보다 구조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한경 지음 | 흐름출판 | 308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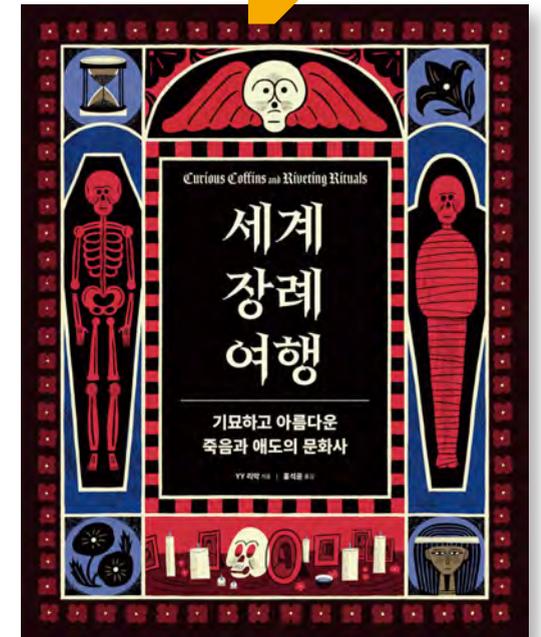


## 산토끼 키우기

영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팬데믹 기간 시골에서 우연히 만난 새끼 산토끼를 돌본 경험을 담은 에세이다. 저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조심스럽고 다정한 태도로 돌봄을 이어 간다. 산토끼를 집으로 데려오면 서도 야생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발 물러서 있으며, 끝내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다.

인간과 야생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은,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책은 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한발 물러나게 한다. 새해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느낄 때, 당장 다시 뛰기보다 잠시 멈춰 숨 고르는 법을 알려 주는 책이다.

클로이 달튼 지음 | 이진 옮김 | 바람북스 | 244쪽 | 19,000원



## 세계 장례 여행

다양한 문화권의 장례 풍습을 소개하며 죽음을 단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책이다.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축제부터 필리핀 북부 절벽에 매달린 관,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의 두개골 컬렉션, 인도의 갠지스강 야외 화장까지 세계 곳곳의 장례 전통을 생동감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탐색한다.

저자는 장례를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삶을 재정의하는 시간으로 바라본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언젠가 끝난다'라는 사실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다짐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 작심삼일로 끝난 계획 앞에서 허탈해질 때, 이 책은 지금의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일깨우고 방향을 잃은 다짐에 무게와 이유를 부여해 준다.

YY 리악 지음 | 홍석운 옮김 | 시그마북스 | 192쪽 | 28,000원

# 오.후.의.콘.서.트

예술로 떠나는 세계여행

3월 한국가곡의 향기

4월 무아. 오.우.르.앙.보

5월 세상위의 열매

6월 '인.부.리.안.수.산' 매인.오.우.르.앙.보

9월 오.우.르.앙.보, 나.이.르

10월 소.핀.앙.부.르.앙.보 오.우.르.앙.보

11월 팜.페.르.제.르.수

12월 Viva Italia! 이.플.라.넬.라. 캄.보.디.비

티켓 전석 20,000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년 3월~12월 \*7,8월 제외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 INSIDE SEONGNAM

성남을 기반으로 생성된 문화예술이  
작품, 공간, 창작자를 통해 보다  
깊이를 가지며 예술적 호기심으로  
삶을 환기합니다.



70  
리포트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25 성남문화재단

82 OPEN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84 성남아트센터가이드  
캘린더+맵

85 2.3월의 큐레이션



성남의 예술가  
회화작가이만나 76

89  
성남문화예술계 소식



95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성남문화재단  
공간 탐구생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25 성남문화재단

# 문화로 숨 쉬고 예술로 꿈꾼 1년의 기록

2025년 성남문화재단의 한 해는 시민과 함께 만든 장면들로 채워졌다. 축제의 현장과 도심의 공원, 무대와 전시장 그리고 공공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문화와 예술은 도시 곳곳에서 시민의 일상과 만났다.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한 해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호흡해 온 시간을 사진으로 되짚어 본다.

글 손세은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 1. 성남페스티벌 메인 콘텐츠 <시네 포레스트: 동화>
- 2. 분당구청 잔디광장에 펼쳐진 성남페스티벌의 넥슨 게임 캐릭터 체험 코너
- 3. 뮤지컬 캠프: 창작뮤지컬 <콩나물 버스 in magic hour>

## 시민과 함께한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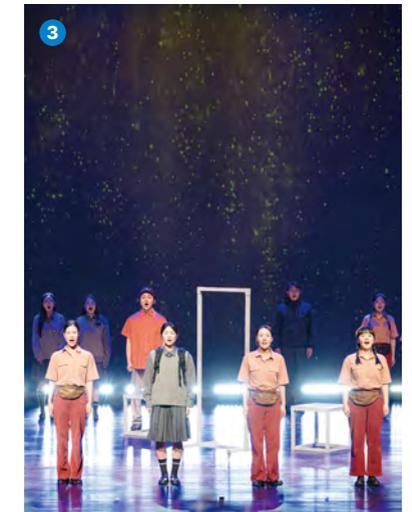
축제의 현장에서, 일상의 공원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성남의 시민들은 예술의 주인공이 되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쌓아 올린 순간들이 성남의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 2025 성남페스티벌 | 9.19~10.28

기술과 예술, 시민의 상상력이 만나는 미래형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이 열흘간 성남의 곳곳에서 펼쳐졌다. 중앙공원 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초대형 미디어 아트 공연 <시네 포레스트: 동화>, 희망대근린공원과 분당구청 잔디광장, 탄천 등 성남 전역을 무대로 펼쳐진 게임 기업 넥슨NEXON의 게임 캐릭터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초대형 드론 라이트쇼까지, 시민과 함께 '먼저 온 미래'를 현실로 구현하며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 뮤지컬 캠프: 창작뮤지컬 <콩나물 버스 in magic hour> | 11.29~30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시민들이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 창작뮤지컬 <콩나물 버스 in magic hour>를 선보였다. 뮤지컬 캠프 '드림 온 스테이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2명의 시민 배우는 3개월간의 연기·보컬·안무 트레이닝을 거쳐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시민의 땀방울로 완성된 진정성 있는 연기가 관객의 깊은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 파크 콘서트 | 6.14 / 9.6 / 9.27 뮤직 페스타 | 6.28 / 10.18 피크닉 콘서트 | 9.13

도심 속 야외 음악 축제로 사랑받아 온 <파크 콘서트>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실력파 밴드부터 감성 발라드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음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성남 본도심에서 즐기는 야외 콘서트 <뮤직 페스타>와 <피크닉 콘서트>는 7080세대부터 MZ세대까지 아우르는 무대로 도심의 일상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 개관 20주년, 아트센터의 무대를 빛낸 공연들

2005년 개관 이후 지역과 세계를 잇는 화제의 기획으로 예술의 소프트파워를 보여 준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은 2025년에도 세계 최정상 예술가들의 단독·화제의 공연,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브랜딩 공연 시리즈와 기획 콘텐츠로 관객들과 만났다.



###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 3.9

우리 시대의 바리톤이자 탁월한 가곡 해석자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피아니스트 게를트 후버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 무대를 찾았다. 독일 가곡 '리트'라는 형식이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들어도 들어도 아름다운 목소리란 어떤 것인지, 시를 감싸는 투명한 산문 같은 피아노 반주란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각인시킨 명연이었다.

### 호페쉬 쉐터의 <꿈의 극장> | 3.14~15

세계 정상의 현대무용 안무가 호페쉬 쉐터의 <꿈의 극장 Theatre of Dreams> 국내 초연. 창의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속에서, 쉐터는 춤과 음악뿐 아니라 무대 연출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정교한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 5.31

독일 명문 악단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체코 지휘계를 대표하는 야쿠프 흐루샤의 내한 공연. 독일 악단 특유의 중후함에 보헤미안 음색을 더한 독창적인 사운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의 감성 깊은 협연으로 시너지 넘치는 무대를 완성했다.

### 오페라 <토스카>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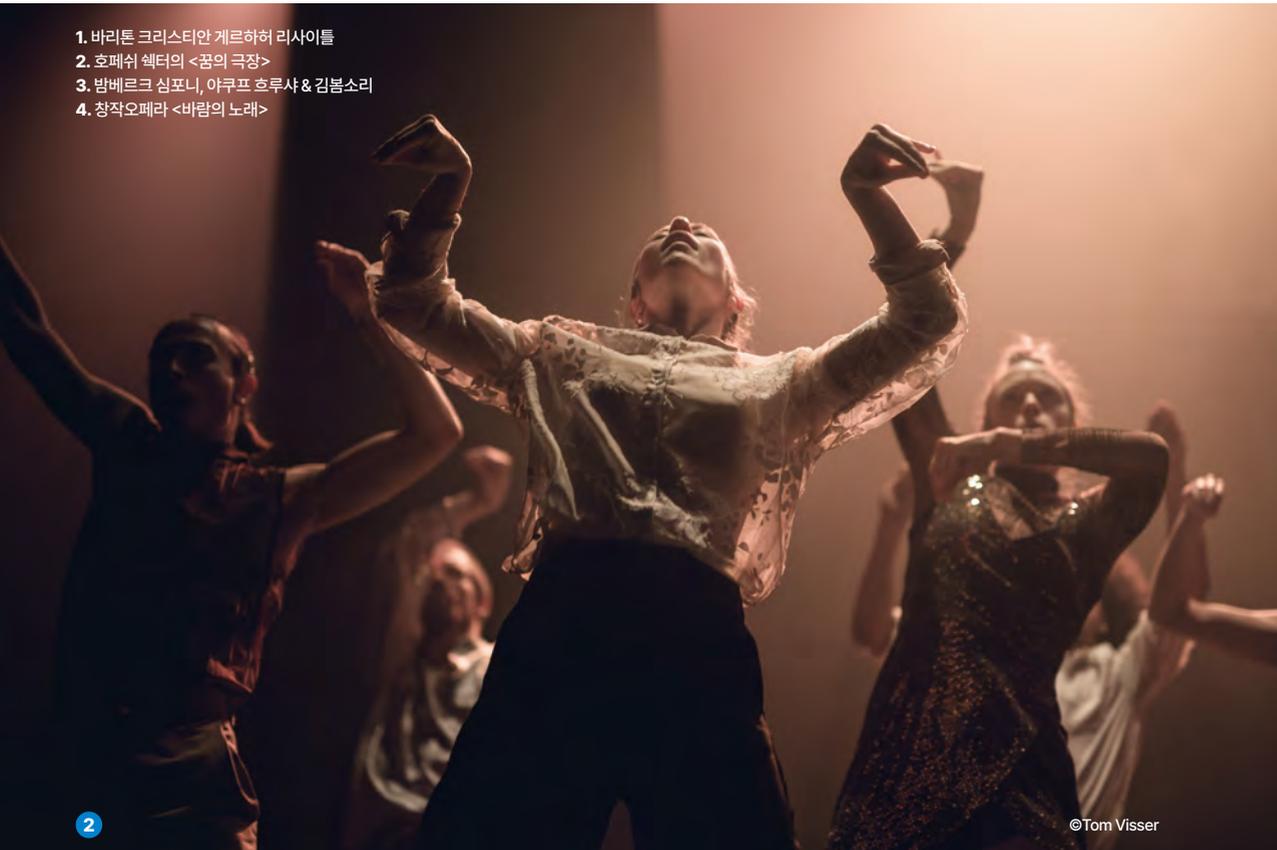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작으로 선보인 오페라 <토스카>. 1800년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사랑과 음모, 비극의 드라마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펼쳐졌다. 소프라노 조선영·서선영, 테너 신상근·박성규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밀도 높은 연기와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무대를 채웠다.



###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 11.14~15

<바람의 노래>는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동요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민족 정서를 노래한 작곡가 박태현의 대표작들을 모티프로 삼은 창작오페라다. 성남을 대표하는 예술가 박태현의 유산을 성남문화재단이 지역 및 각계 예술가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빛어냈다.

1.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2. 호페쉬 쉐터의 <꿈의 극장>
3. 밤베르크 심포니, 야쿠프 흐루샤 & 김봄소리
4. 창작오페라 <바람의 노래>





### 2025 성남문화정책 포럼 | 5.26 / 8.7

성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인과 각 분야 전문가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정책 포럼을 열어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성남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창작 방안을, 두 번째 포럼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기술 융합 정책의 방향과 그 안에서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 성남의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 4.25~7.6

#### 성남작가조명전 I~IV | 연중 지속

성남큐브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을 이끌어 가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 세계를 그룹전·개인전으로 엮은 기획전시로 시민과 지역 예술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역사와 문화, 예술, 생태, 환경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탐구하고 지역의 미술 지형을 한눈에 살펴보는 대표 주제기획전 성남의얼굴전에서는 '무해력無害力'을 주제로 지역 작가 7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성남작가조명전에서는 이종민, 전효성, 김남표, 정보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 지역과 함께, 예술과 함께

재단은 지역 예술가를 발굴·조명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작가의 예술 세계와 시민의 시선, 공공의 담론이 만나는 지점에서 성남의 문화 지형을 입체적으로 그려나갔다.



## 예술과 기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 성남

2025년 성남문화재단은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을 향한 변화와 실천을 본격화했다.

### 윤정국 제8대 대표이사 취임 | 4.2

2025년 성남문화재단은 제8대 윤정국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윤 대표이사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이라는 경영 전략 아래 예술과 사람, 기술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성남을 지향하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성남 시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2025 성남문화정책 포럼 II
2. <2025 성남의 얼굴전> 전시 전경
3. 윤정국 대표이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4. 사회공헌 캠페인 <월요일은 굿월데이> 참여

### 사회공헌 캠페인 <월요일은 굿월데이> 참여 | 8.26

#### 임직원 탄천 정화 활동 | 10.22

성남문화재단은 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경영과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월요일은 굿월데이' 캠페인과 연계한 물품 기부와 탄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회화작가 이만나

#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서 헤테로토피아를 그리다

이만나 작가는 사실을 그리면서  
사실이 가리고 있는 부분을 드러낸다.  
캔버스에 뿌려진 입자들이 공간의  
울림을 만들고 그 공명의 틈새로 마침내  
이면의 세계가 열린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리는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에  
앞서, 그의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작업실을 찾았다.

글 김호경 객원기자 | 사진 최재우



**2026 성남작가조명전의 첫 번째 작가로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성남에 살기 시작한 시기는 분당구가 처음 조성될 무렵입니다. 군복무 중에 부모님이 성남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휴가를 나올 때마다 동네를 탐색하고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성남에 터를 잡았고 작업실도 근방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안에서 작업실을 몇 차례 옮겨 다녔는데 현 작업실에는 7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업실을 오가는 것이 제 일상이고요, 보통 하루에 10~12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냅니다. 아침에는 날씨에 따라

클래식, 뉴에이지, 재즈, K-팝 등을 골라 듣고 낮에는 라디오를 틀어 둔 채 작업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평론가가 작가님을 '일상과 비일상,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낮설게 하기'라는 장치를 통해 이 경계에 다가가지요?**

루마니아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저서 『성과 속』에서 역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신화가 그 틈을 메우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그 '낮설'의 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

상을 살아가다 문득 비일상이 솟아올라 긴장 상태를 만들어 내는 거죠.

사실 '낮설게 하기'는 일련의 과정이라기보다 순간의 감각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떤 대상을 우연히 마주하는 찰나에 '낮설'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낮설'이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노을을 보며 붉은색이 나를 덮쳐 오는 듯한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지금은 두려움보다 '쿵' 하고 내려앉는 울림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의 생경함과 비슷하달까요.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낮설'은 시공간이 정지하거나 비현실의 세계로 빨

려 들어갈 것 같은 현기증을 동반하니까요. 저는 현실의 모퉁이에 선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면서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요. 작업 초기에는 '낮설게 하기'라는 장치를 프레임 안의 대비로 구현했습니다. 일상적인 육교나 건물 위에 비일상적인 구름을 배치해 '낮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최근에는 '오래 그리기'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 그렸지?'라는 질문을 남김으로써 '낮설'을 유도하는 거지요.

**‘낯설’을 느낀 사물이나 공간을 작품으로 옮기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낯설’의 순간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낯설지 않겠죠. 그 순간을 항상 대비해 두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기억을 더듬어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어 둡니다. 사진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주한 대상이 객관적으로 어떤 형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이후 사진을 확대하거나 비틀어 보며 구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목탄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밑작업 역시 되도록 형상을 객관화해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림이 현실과 닮았다면 어떻게 비현실, 즉 ‘낯설’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게 다가온 울림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진동’의 개념과 입자로 가득 찬 공간을 떠올렸어요. 물감을 희석해서 뿌리면 캔버스 위로 다양한 굵기의 방울이 맺힙니다. 그 입자 중 작품에 부합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형광으로 닦아 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색의 방울들이 겹치며 ‘겹색’이 나타납니다. 다채로운 색이 진동하는 표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위에 붓질을 거듭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는 쾰켜이 쌓인 어두운 색감과 희소한 빛이 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교 유학 시절의 경험이 색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밤은 낮의 조명이 사라지고 무대 이면이 드러나는 생소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색을 좋아하는 적도 있습니다만 밤에 몰두하게 되면서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밤을 오로지 목탄으로만 그리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떠난 독일 유학 시절, 어느 화창한 봄날에 교수님이 물으시더군요. “왜 이런 날씨에 시커먼 작업실에 틀어박혀 시커먼 그림만 그리고 있느냐”고요. 당시 저는 불투명한 앞날을 고민하며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심정이 그림에 투영되었겠죠. 돌이켜 보면 그 질문이 밝은 색감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어 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후 어느 비 오는 밤, 산책길에 하늘을 가릴 정도로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아래에 서서 올라다보니, 희미한 입자들이 수많은 빗방울과 뒤섞여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그 느낌을 캔버스에서도 살리고 싶어서 밝은 색 물감을 흠뻑려 보았고요. 어쩌면 그 작업이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감각을 끄집어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2



3

1. 이만나, <벽>, 2010, oil on canvas, 112×145.5cm(details)
2. 작가는 일상에서 만난 '낯설'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고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
3. 작업실에서 인터뷰 중인 이만나 작가

**독일에서 ‘벽’을 주제로 쓴작가 노트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면벽수행(面壁修行)에 임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벽’을 마주하며 수양했던 시간이었죠. 독일에서 ‘벽’은 문화적 차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해와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벽들은 대개 100년 이상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 주인을 거치며 색이 덧입혀지고, 낡은 곳이 보수되거나, 창문이 생기고 사라지는 등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독일 사람들의 고지식한 태도에 마치 벽을 만난 듯 답답함을 느끼다가도, 100년이 넘는 벽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들의 토양 위에 견고하게 쌓인 시간이 그 완고함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또 벽은 막혀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작가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쌓고 또 쌓아 올리면서 나는 그 벽을 허물려 한다.’

**최근작에서는 벽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가 두드러집니다.**

담쟁이는 그 자체로 굉장히 회화적인 대상입니다. 벽이라는 평면 위에 식물이 선을 그린 듯, 부피를 더해 가는 모습이 마치 그림과 같죠. 표면적으로는 깊이가 없지만, 그 너머에 생동하는 깊이를 품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담쟁이를 보고 있으면 일단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겨울이면 잎이 전부 떨어졌다가 봄이 오면 다시 벽을 온통 뒤덮잖아요.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뭘 하는지 알긴 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담쟁이의 생명력에 대한 일종의 경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태곳적 자연의 영역이니까요.

종종 담쟁이에서 제 모습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작업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오래 그리기’ 역시 정해진 답이 없는, 어쩌면 부질없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들여야만 비로소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가님의 작품과 작가 노트를 보면,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에세이 『시지프 신화』가 떠오릅니다.

알베르 카뮈를 실존주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와 비교해 보자면, 카프카가 초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반면, 카뮈는 철저히 현실 안에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안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감정을 직시하라고 강조하죠. 특히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에 대해 서술한 대목은 제가 '낯설'이라 정의해 온 감각과 매우 비슷합니다.

(생소함이란) 즉 세계가 조밀한 것이라고 깨닫는 것, 하나의 돌이 얼마만큼 낯설고 우리에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인가를, 그리고 자연과 하나의 풍경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정할 수 있는가를 엿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 (...) 단 하나의 사실, 즉 세계의 조밀함과 생소함, 그것이 부조리한 것이다.

작가님과 대화할수록 '스스로 치밀해지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천성'이라 표현하셨는데, 그 천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확신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나요?

독일 유학을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서른다섯이었습니다. 회화 작업을 지속하면서도 빠르게 변하는 주변의 흐름 탓에 고민이 깊던 시기였죠. 하지만 막상 독일에 가 보니 유행이랄 게 없더군요. 누가 어떤 옷을 입든,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마주하며 이전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잊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경쟁과 견제를 덜어 내니 오히려 제 작업에 더욱 치밀하게 파고들 수 있었죠.



1



2

1. 이만나, <길가>, 2025, oil on canvas, 130.3×194cm(details)  
2. 작가의 팔레트에 남은 '오래 그리기'의 흔적

독일에서 마주한 거장들의 작품 또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화의 평면성에 한계를 느끼며 회화의 해체나 입체로 확장하는 설치 작업을 고민했지만, 정작 거장들의 회화 앞에서는 그 어떤 장치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평면적인 그림일 뿐인데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몰입감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회화의 힘'임을 실감했습니다. 평면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서히 몸에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작가님의 작품 <면 봄><sup>2019</sup>이 떠오르는데, "내게 봄은 항상 아득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전 중원구 여수동에 작업실이 있던 시절, 북향에 가건물처럼 새 시로 이루어진 공간이라 겨울이면 실내인데도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웠어요. 내복을 껴입고 난로를 켜도 몸이 굳을 정도였죠. 담쟁이를 그리며 "겨울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하고 되뇌었는데, 어느새 봄이 와 버렸어요. 몸은 여전히 움츠린 채였는데도 말이죠. 봄을 그려 보려 했지만 제 기억 속의 화사한 봄, 이상적인 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꽃이 만개한 화사한 봄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뿌연 봄이 더 익숙하니까요.

이번 전시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가 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누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Paul-Michel Foucault)가 만든 개념이에요. 유토피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일컫는 반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에 실재하는 이질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독일에서 연 졸업 전시의 제목이 <헤테로토피아>였지요.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의 삶이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예술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을 담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두루 볼 수 있는 전시인 만큼, 시간이 흐르며 붓질과 색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간극을 느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나를 붙잡는 작품 앞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래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어떤 일상과 비밀상을 살아갈 계획이신가요?

아마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 되겠지요. 집과 작업실을 오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전시와 인터뷰에 참여하면서요. 몇몇 작품은 홍콩과 시카고에서 선보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비밀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약속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다 불현듯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곳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을 대표하는 아카데미는 2005년 첫 출발 이후 음악·미술·무용·감상 등 수준 높은 분야별 예술 강좌를 선보여 왔다. 실제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가들의 실기 강의, 음악과 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감상인문 강좌는 오랫동안 회원들의 사랑을 받아 온 간판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2월 24일(화)부터 6월 27일(토)까지 성인을 위한 예술 실기·감상인문, 어린이 창의예술 강좌가 예술 애호가들을 맞이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나만의 예술적 영감과 표현을 다채롭게 확장할 수 있는 예술 실기 부문은 2월 24일(화)부터 총 16차시 35개 강좌를 진행한다. 기악·성악·서양화·동양화·한국무용·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취향에 맞는 강좌 선택이 가능하며, 첼로·클라리넷·인체크로키 등 직장인을 위한 12개의 저녁 강좌도 만나 볼 수 있다.

미술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입문자라면 기초 소묘와 드로잉 과정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미술 기초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서양화: 기초 조형 워크숍', 현대 회화의 기법과 표현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현대미술과 회화', 다양한 드로잉 소재와 재료의

탐색 속에 저마다의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찾아가는 '나의 드로잉'에서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배우 보는 것을 추천한다. 동양화에 입문하고 싶다면 '수묵채색화' 강좌에서 매화와 연꽃 그리기, 화제글씨를 연습하며 차분한 수양의 시간을 가져 보자. 성악의 기초를 호호부터 하나하나 다지고 싶다면 '목요 예술가곡' '세계 예술가곡 산책' '수요 가곡과 발성' 등 베테랑 성악가들의 강좌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감상인문 강좌는 올해에도 클래식 음악과 미술사, 현대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 분야를 깊고 넓게 탐구한다.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유려한 해설로 감상하는 '오페라 살롱', 오케스트라의 발전과 거장 지휘자들의 자취를 짚어 보는 '클래식 포레스트: 오케스트라의 거장들',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음악사 속 거장들의 삶과 음악을 전하는 '즐거운 음악 감상: 음악을 만난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수준 높은 인사이트를 선사하는 아카데미 간판 강좌들이다. 아트 컬렉팅의 기초 강의와 갤러리 현장 탐방을 병행하며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키우는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 작품 이면의 철학·미학적 관점을 서양 미술사 속에서 바라보는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 미술사' 강좌에서는 미술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 보며 예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일깨울 수 있다.

미술을 중심으로 색다른 세계 여행을 즐기고픈 이들이라면 다음의 강좌를 주목하자. 세계 주요 미술관과 소장품, 작가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계 미술관 산책', 세계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과 그 도시의 미술관을 함께 소개하는 '음악이 있는 도시, 미술관이 있는 여행'은 음악과 미술, 건축과 문화사까지 망라하는 종합 선물 같은 강좌들이다. 모두 3월 10일(화)부터 요일별 순차 개강하며, 총 13회 중 1회 차는 무료 오픈특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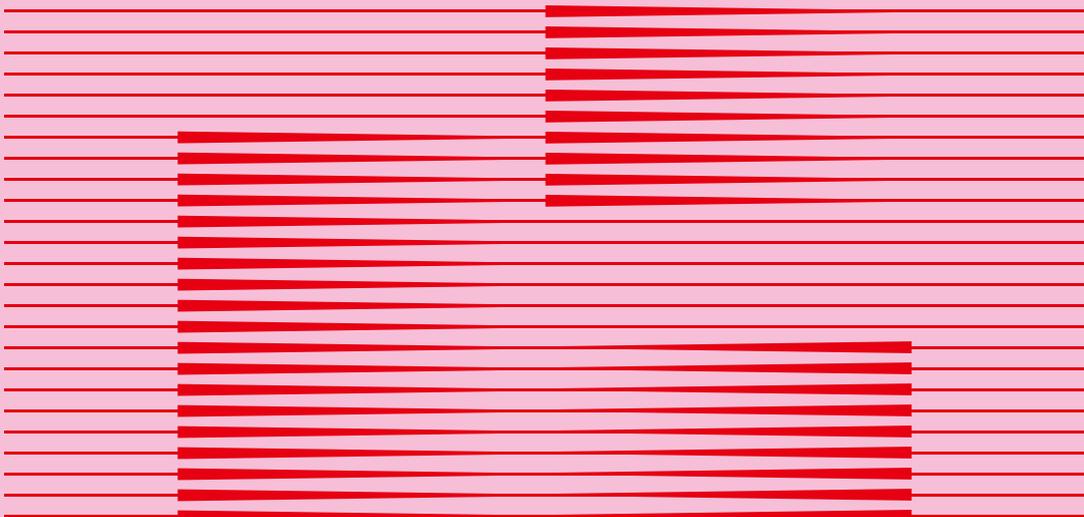
3월 17일(화) 개강하는 어린이 아카데미(총 12차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색채의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며 저마다의 감각을 발견하는 '컬러 스튜디오-색이 흐르는 시간', 세계 명작동화와 소설을 나만의 시점으로 재구성해 디오라마로 제작하는 '스토리메이커의 예술환상특급', 일상 속 발견을 예술로 빚어 가는 서사형 융합예술 '윈드아트마켓',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창의드로잉' 등 창의예술 강좌와 더불어, 순수예술의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야금·바이올린·첼로 실기 강좌가 예술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 줄 것이다.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성남아트센터가이드  
2026년 3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 2026.03

- Ⓞ 오페라하우스
- Ⓞ 콘서트홀
- Ⓞ 앙상블시어터

- Ⓞ 성남아트리움
- Ⓞ 미디어홀
-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	TUE	WED	THU	FRI	SAT	SUN
						<b>1</b> Ⓞ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15:00)
<b>2</b>	<b>3</b> ◆ Ⓞ 기획 상영회 <베르메르의 시선, 영화가 되다> (13:30)	<b>4</b> ◆ Ⓞ 오후의 콘서트 (15:00)	<b>5</b> Ⓞ 김삼·정상희 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 (19:30)	<b>6</b> Ⓞ 독일 예술가곡 페스티벌 (19:30)	<b>7</b> Ⓞ 테헤란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독일 예술가곡 페스티벌 (14:00) Ⓞ 가족뮤지컬 <라퐁젤> (14:00)	<b>8</b> Ⓞ 판교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가족뮤지컬 <라퐁젤> (11:00, 14:00, 16:00)
<b>9</b>	<b>10</b> Ⓞ 가곡 페스티벌 (19:30)	<b>11</b> Ⓞ 최수연 오보에 독주회 (19:30)	<b>12</b> Ⓞ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9:30)	<b>13</b> Ⓞ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 <모차르트의 밤> (19:30)	<b>14</b> Ⓞ ZION OB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8:30) Ⓞ 가족뮤지컬 <급식왕2> (11:00, 14:00, 16:30) Ⓞ 최현우 아판타시아 (15:00, 19:00)	<b>15</b> Ⓞ 가족뮤지컬 <급식왕2> (11:00, 14:00) Ⓞ 최현우 아판타시아 (14:00, 18:00)
<b>16</b>	<b>17</b>	<b>18</b>	<b>19</b> ◆ Ⓞ 마티네 콘서트 (11:00) Ⓞ 뮤지컬 <비아도미니> (15:00, 19:30)	<b>20</b> Ⓞ Viva Musica 정기연주회 (20:00)	<b>21</b>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19:30) Ⓞ 남만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11:00, 14:00, 16:30)	<b>22</b> Ⓞ SA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서울만들린체임버 정기연주회 (15:30) Ⓞ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11:00, 14:00, 16:30)
<b>23</b>	<b>24</b>	<b>25</b> Ⓞ 앙상블 아띠엠 정기연주회 (19:30)	<b>26</b>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b>27</b>	<b>28</b> ◆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17:00) Ⓞ 스쿨 매직 콘서트 (11:00, 14:00) Ⓞ 매직콘서트 <더:매직서커스> (11:00, 14:00, 16:00)	<b>29</b> Ⓞ 성남시 신춘음악회 (19:00) Ⓞ 스쿨 매직 콘서트 (11:00, 14:00) Ⓞ 매직콘서트 <더:매직서커스> (11:00, 14:00, 16:00)
<b>30</b>	<b>31</b> Ⓞ 2026 명 협주곡 시리즈XII (19:3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 겨울특별기획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레플리카전	25년 12월 12일-3월 15일	기획전시실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 신소장품전 <찬란한 고요>	2월 20일-4월 19일	상설전시실
◆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2월 27일-4월 26일	반달갤러리

갤러리808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Good Energy Project	3월 18일-3월 25일
영감의 순간	3월 28일-4월 4일
삶의 기록과 상상-사진·웹툰·회화로 보는 성남	3월 28일-4월 4일

# 성남아트센터 안내도



## 1 오페라하우스

- 1-1 B1 갤러리808, 레스토랑 피글릿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 2F 세계악기전시관

## 2 콘서트홀

- B1 아카데미 음악실
-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 3 앙상블시어터

-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 2F 아카데미 강의실

## 4 큐브플라자

- 4-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 4-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4-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4-4 성남미디어센터
- 4-5 미디어홀
- 4-6 카페 브람스 큐브
- 4-7 큐브사랑방
- 4-8 약기랑

## 5 안내

- I Plaza 종합안내소

## 6 사무동

- 1F 컨퍼런스홀

## 7 야외광장 + 특화거리

## P 주차장

-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 P2 콘서트홀 주차장
- P3 야외주차장

← 아탑역 방면

후문 정산소

정문 정산소  
이매역 방면 →

## BBC심포니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Marco Borggreve

©Mark Abart

티켓 R 180,000 / S 130,000 / A 80,000 ● 예약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2026.3.28.SAT  
5:00PM

SNART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카리 오라모 & 손열음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180,000원, S석 130,000원, A석 80,000원  
문의 031-783-8000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악단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 감독 사카리 오라모의 지휘로 내한 공연을 선보인다. 1930년 창단해 정교한 앙상블과 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영국 문화와 클래식을 대표해 온 BBC 심포니는 수석지휘자 오라모와 함께하며 그 음악적 정체성을 한층 선명하게 구축해 왔다. 여기에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 온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R. 슈트라우스 <돈 후안>을 시작으로,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3번, 제럴드 핀지 <에클로그>,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까지 20세기 관현악 레퍼토리의 다채로운 색채와 깊이를 아우르는 무대가 될 것이다.



## 연극만원 I <템플>

화제의 연극을 1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 시리즈. 올해에는 각기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 낸 연극 다섯 편을 선보인다. 첫 작품은 자폐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성장한 템플 그랜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템플>이다. 사회적 편견과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해 나가는 템플의 여정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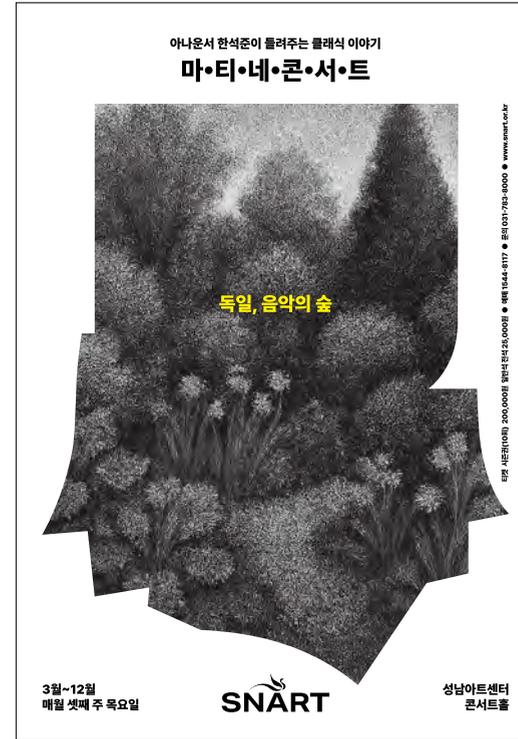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2월 27일(금)~28일(토)  
 금요일 오후 2시·7시 30분 / 토요일 오후 2시·6시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



## 오후의 콘서트 3월 <한국 가곡의 향기>

성남아트센터가 2026년 새롭게 선보이는 낮 공연 기획 시리즈 <오후의 콘서트>는 매달 한 나라의 음악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예술을 풀어낸다. 시즌 첫 공연인 3월에는 한국 가곡을 주제로 소프라노 김성은, 테너 황현한, 바리톤 정태준이 봄의 설렘을 담은 한국의 대표 가곡들을 들려준다. 성악가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멜로디, 우리말 가사가 전하는 감성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한층 깊이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3월 4일(수) 오후 3시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



## 마티네 콘서트 3월 <자유를 향한 의지>

2026년의 마티네 콘서트는 '독일, 음악의 숲'을 주제로 서양 고전음악의 요람인 독일의 찬란한 음악 유산을 2년에 걸쳐 깊이 있게 탐구한다. 그 첫 장을 여는 3월 공연에서는 삶의 고난 속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음악에 담아낸 베토벤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지휘자 최희준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과 교향곡 7번을 들려주고,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한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3월 19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 겨울특별기획전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 레플리카전

빛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명작을 레플리카로 만나는 전시 <베르메르의 비밀: 고요 속의 빛>이 3월 15일까지 성남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베르메르 사후 350주년을 기념해 그가 남긴 전 작품 36점을 한자리에 조망하는 국내 최초의 기획전으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우유를 따르는 여인> 등 대표작과 함께 '카메라 옵스큐라' 체험, 포토존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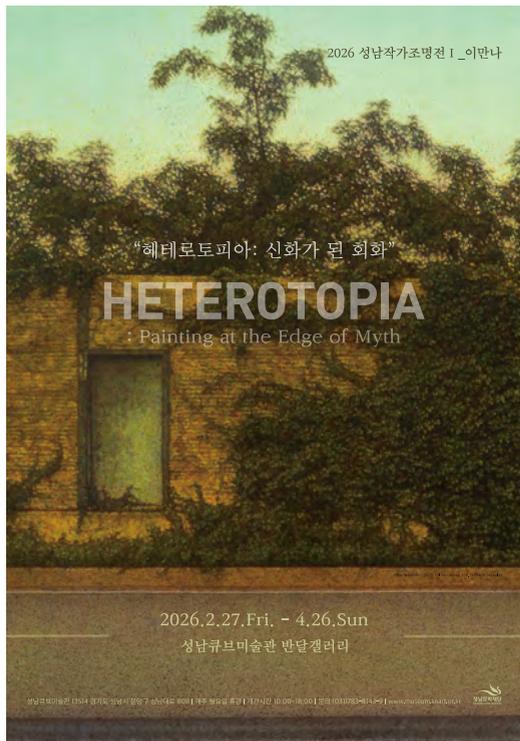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3월 15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성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의 031-783-8142-9



##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 I <찬란한 고요>

2026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지난해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해 하나의 주제로 엮어 소개하는 전시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붙잡아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표현한 지역 작가 12인의 작업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고요한 성찰을 담아낸다. 김남표, 민재영, 서지은, 송윤주, 송지혜, 이현배, 장원실, 장희정, 정서인, 피정원, 한광우, 홍세연 작가가 참여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20일(금)~4월 1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 2026 성남작가조명전 I 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중견 작가를 소개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은 올해 첫 전시로 회화 작가 이만나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일상에서 마주한 낯선 순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오랜 시간 반복과 물입을 통해 고유한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아우르며, 화풍의 변천과 예술 세계가 확장되어 온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2월 27일(금)~4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9



## 성남문화재단,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우수 재단 선정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이 지난 1월 15일(목)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추진한 이 공모사업은 예술 후원의 일상화와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후원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재단·기업·예술가(단체)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뤄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재단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지역 기업인 늘유니버스(대표이사 배보찬)의 후원을 받아 지역 작가 이종민을 지원했다. 이종민 작가는 키네틱아트 작품인 <향일군락>을 창작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시한 바 있다. 이 전시는 재단이 지역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매개기관으로서의 첫 성과이자, 지역 사회와 예술과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성남문화재단, 청소년 창의성 키우는 ‘프로젝토리’ 본격 운영

성남문화재단이 NC문화재단(이사장 박명진)과 함께 청소년의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공간 ‘프로젝토리’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두 재단은 2025년 10월, 청소년 창의활동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성남시 수정구 삼성동) 4층에 창의 공간 ‘프로젝토리’를 마련했다.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project와 실험실laboratory의 합성어로, NC문화재단이 2020년 서울 대학로에 처음 개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공간이다. 서울 외 지역으로는 논산, 수원에 이어 성남이 세 번째 운영 지역이다.

이번에 조성된 ‘프로젝토리 성남’은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150종 이상의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완비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7일(토)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2008~16년생)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프로젝트 활동은 물론 다양한 그룹 활동과 창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멤버십 가입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대면 상담을 거쳐 진행된다.

이용 안내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www.snarte.or.kr](http://www.snarte.or.kr)  
문의 | [sn\\_info@projectory.or.kr](mailto:sn_info@projectory.or.kr)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4층에 조성된 창의 공간 ‘프로젝토리’



© 최재우



## 성남시향, 어린이집·유치원 150곳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클래식이 놀러왔어요>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클래식 공연 관람에 제약이 있는 영유아들에게 악기 소리와 음악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주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서는 동요와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현악·관악 앙상블로 들려주고, 악기 소개와 해설을 곁들여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성남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일정과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 [art.seongnam.go.kr](http://art.seongnam.go.kr)

## 성남시립국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새봄 음악회 <내게 온 봄날>

성남시립국악단이 제74회 정기연주회 새봄 음악회 <내게 온 봄날>을 3월 12일(목)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한진 성남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국악관현악 <빛나는 땅>으로 올해 첫 무대의 포문을 연다. 이어 생황 협주곡 <송하취생>과 태평소를 개량해 만든 ‘장새납’의 독특한 음색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새납 협주곡 <열풍>이 연주된다. 협연자로는 생황 연주자 김태경과 장새납 연주자 이영훈이 각각 무대에 오르며, 소리꾼 배애리가 <월하정인> 등을 들려준다. 티켓은 전석 1만 원. 공연 및 예매 안내는 성남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성남시립국악단 031-729-4810



2026 성남작가조명전 I\_이만나

“헤테로토피아: 신화가 된 회화”

# HETEROTOPIA

: Painting at the Edge of Myth

<The Wayside> 2025, Oil on canvas, 130.3x194cm (detail)

2026.2.27.Fri. - 4.26.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3-9 | www.museum.snart.or.kr



아나운서 한석준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 마·티·네·콘·서·트

독일, 음악의 숲

티켓 시준권(10회) 200,000원 일반석 잔석 25,000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 www.snart.or.kr

3월~12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SEONGNAM ARTS CENTER ACADEMY

예술이 일상이 되는 곳



수강 신청 및 강좌 안내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법인회원

####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앤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 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한/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트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상우/강지선** (주)픽셀플러스 대표이사  
**이서규/황혜숙**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100인회**

#### 개인회원

####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육션 이사

####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주)씨너스 회장

#### 철죽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헬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교육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에칭디엔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코렐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전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전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 김준현/정승희

**김준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전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총재  
**마희자/조득환** 사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증권부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 서정림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치과의사 / 한국화가  
경기일보 상무

#### 손익명/손외자

**신동화**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오풍영/이승희**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유성희/유성은**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 이영화/이정우

**이윤이**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은화/정인희** (주)한술교육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 이희준/김명순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준/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 임삼규/정효정

**임인선/채인호**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 임한주/김윤선

AMK

####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이탈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 정승림/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곡 대표 / 명당원의원 이사

#### 정은기/박은숙

前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문화재단 이사장

####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 최은희/연형모

인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 탁순희

前대교 이사장

####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 홍애자

수필가

####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 가치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동농원갈비 대표  
**김홍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박미영**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 백선정

**오미주**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이기영** (주)리크루즈 여형 대표이사

#### 명예회원

**박명숙**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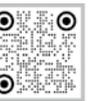
**회장** 강효주  
**부회장** 김상일, 김연태, 윤영상, 최은희, 황광석  
**이사** 김선애, 김상한, 김연태, 심윤경, 윤영상,  
최은희, 황광석, 허용무  
**감사** 김길복, 김문기

####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 폐교에서 문화예술 놀이터로

그동안 성남아트센터 안의 숨겨진 꿀 공간을 소개해 온 이 코너!

올해에는 성남 곳곳에 자리한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간들을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에서 아동과 청소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한 특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바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가득 피워내는 곳,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입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홍보기획부 | 사진 최재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는 2019년 폐교한 옛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 창의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새롭게 문을 연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입니다. 교실과 강당 등 기존의 학교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목공예부터 바느질까지 내 손으로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손기술랩', 이미지·미디어·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랩'과 '소리스튜디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움직임랩', 그리고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아이들의 예

술 작품을 전시하는 로비와 라이브러리 공간까지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올해 꿈꾸는예술터에서는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터 겨울특강'(2월 개강)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특히 오는 6월 27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NC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프로젝트리'를 운영하니, 창의활동 공간과 새로운 예술 경험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꿈꾸는예술터를 찾아 주세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86 | [www.snarte.or.kr](http://www.snarte.or.kr)